

2021
No.113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 Nice to meet samyang ••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차별화된
약물 전달 기술의 첨단 신약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삼양홀딩스 | 삼양사 | 삼양패키징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성 | 삼양이노켄 | 삼양화인테크놀로지 | KCI
삼양데이터시스템 | 삼양EP형가리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삼양EP베트남 | 삼양바이오팜USA | 삼양바이오팜형가리 | 양영수당재단

samyang••
life's ingredients

삼양홀딩스 회장 김 윤 (경영72)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무한한 바람과 수소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지금은 조금 낯선 에너지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세계 최장 수명 수소연료전지 개발

두산은 무한한 바람과 수소를 활용한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퓨얼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1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월 25일(월) 14:0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비대면으로 실시
4월 15일(목)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비대면으로 실시
5월 12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선물로 대체
8월 10일(화)	야구부 후원금 전달	취 소
9월 11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취 소
10월 7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취 소
10월 21일(목)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비대면으로 실시
11월 말	제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L-P경영관
12월 2일(목) 18:20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취 소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4_ 2021 하반기 비대면 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
- 06_ 정기 고연전
- 08_ 특별 기획전
- 10_ 교우의 밤
- 12_ 교우 인터뷰 - 송재현(경영81)
- 17_ 교우기부
- 20_ 교우동정
- 21_ 학번별 소식
- 26_ 교우신간
- 28_ 교우기고_여행기 - 허창무(상65)
- 37_ 교우기고_수필 - 김진해(상66)
- 38_ 교우기고_수필 - 황인강(상61)
- 40_ 교우기고_칼럼 - 이경순(상61)
- 43_ 경영대 소식
- 50_ 모교소식
- 54_ 교수칼럼 - 이필상 전 총장
- 58_ 교수칼럼 - 나현승 교수(경영91)
- 62_ 회비납부 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1 통 권 제113호 Vol.35

발행일 2021년 10월 29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경영대학 교우회장
편집인 신학기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2021년 하반기 비대면 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

1 개최일 : 2021년 10월 21일(목)

2 경영대학장 학사보고

- 관련 자료는 이메일로 송부

3 안건 보고

가. 2021년 상반기 사업보고

1) 손익 현황 (2021년 12말 기준)

-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교우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회비 납부 실적 저조
 - － 총수입 : 전년 대비 약 5천9백만 원 감소 예상
- 직원 1명 감축 및 불요불급한 비용지출 억제 등 비용절감 노력 지속
 - － 총지출 : 전년 대비 약 8천5백만 원 절감 예상
- ▶ 당기순이익 : 약 3천5백만 원 예상
- 수입증대 방안
 - － 광 고 : 2022년부터 기업체 경영 교우들 대상 광고 유치 적극 섭외
 - － 회 비 : 분기별로 납부협조 서신 발송, 분담금 장기 미납 임원 중 일부 교체



2) 2021년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및 예정사업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음

나. 2021년 교우의 밤 관련 보고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대면행사 실시는 불가능함
- 교우의 밤 행사는 친목행사이므로 비대면화상회의는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주관학번인 95학번에서 발전기금 모금 등 행사 준비 미흡
- ▶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교우의 밤 행사를 취소하고 2022년에 실시

4 안건 심의

가. 신임 감사 선임

- 사 유 : 박수근(경영81) 감사 퇴임에 따른 신임 감사 선임
- 신임 감사 : 조성욱(경영92)
 - 현 재 : 삼일회계법인 전무, Partner(조세 1본부 3파트장)

5 기타 보고

가. 현직 회장 사퇴에 따른 신임 회장 선출 필요의 건



정기 고연전 2년째 코로나19로 취소

양교 총장은 지난 8월 24일 총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델타변이와 돌파감염 등 예측불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심 끝에 올해도 부득이하게 정기 고연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 고연전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양교의 체육부와 응원단, 학생, 교직원, 교우·동문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어렵게 내린 결정이니 부디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2021년 정기고연전은 지난 9월 10일~11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무관중 경기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전면 취소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한 취소는 전례가 없었던 일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튿날 열리는 참살이길 무료주점 행사도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되었다.

2019년 정기고연전의 경우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이튿날 경기인 축구와 럭비경기는 전면 취소되었으며 정기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온 축구부와 럭비부 선수들은 아쉽지만 다음해를 기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살이길 뒷풀이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아쉽지만 승부는 내년으로...





2019년 정기 공연전 현장



개막식



빙구



빙구



빙구



야구



농구



농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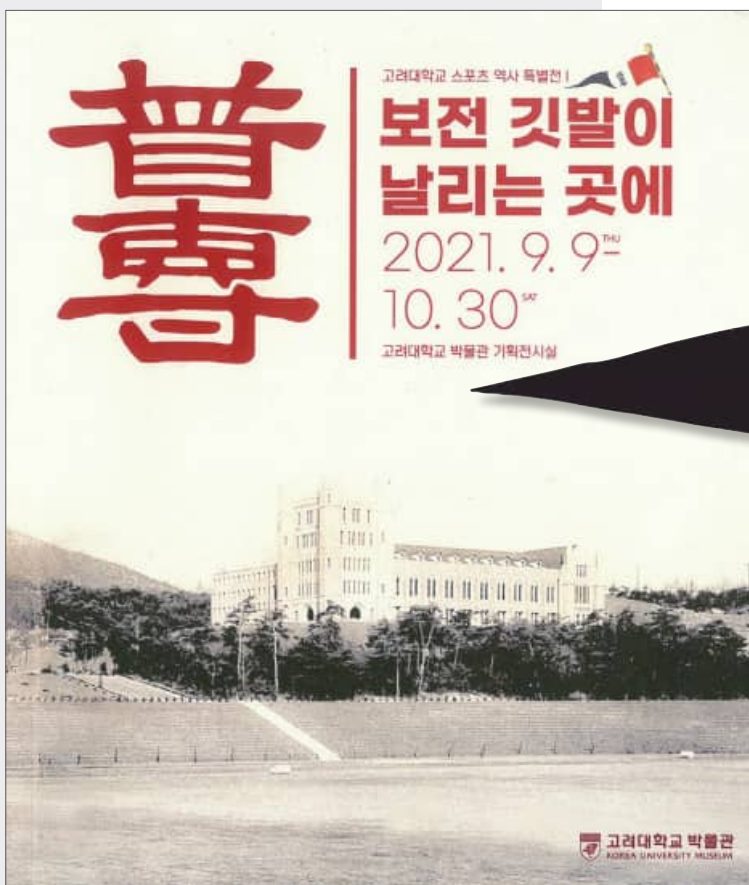


농구

고려대학교 스포츠 역사특별전

〈보전 깃발이 날리는 곳에〉

보성전문학교 시절 운동부의 역사와 활약상,
응원문화를 구성한 특별전시회



1921년 이후의 보전교기 (재현)



2년째 개최하지 못한
정기고연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모교 박물관이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려대학교 스포츠 역사 특별전’
을 모교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전은 보성전문학교
운동부의 역사와 경기 기록,
사진들, 당시 응원문화의 모습,
1948년 런던올림픽 활약상 등을
다뤘다.



전시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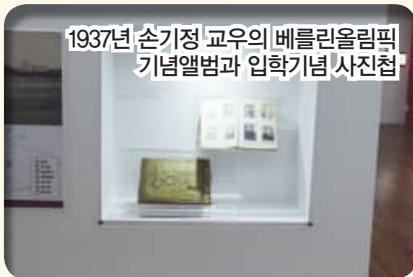
보전 응원곡(재현)을 실제로 들을수 있는 코너



축구부 최초의 우승기



1931년 럭비부 패넛트



1937년 손기정 교우의 베를린올림픽 기념앨범과 입학기념 사진첩



보성전문학교시절 운동부들

빙상부장 진승록 교수와 빙상부원들



보성전문학교시절 운동부들

창단 초기의 아이스하키 선수들(1939)



보성전문학교시절 운동부들

1940년경의 배구부원들



보성전문학교시절 운동부들

1940년 무렵의 핸드볼부원들

보성전문학교시절 운동부

보성전문학교에는 1921년 보전친목회에서 전 조선 정구대회의 참가를 계기로 정구부가 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구부는 창단 3년 만에 1924년 전 조선 전문학교 연합정구대회에서 연희전문학교와 대결하여 우승했다. 이후 축구부, 육상부, 농구부, 유도부, 검도부, 탁구부, 수영부 등 15개 이상의 운동부가 생겼고 전교생 580명 중 300여명이 운동부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스포츠는 보전 학생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이번 특별전에는 보성전문학교시절 운동부의 역사와 1940년 무렵의 빙상부, 역도부 등의 선수 모습, 15개 운동부 배지와 교복, 보전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사용되었던 재현한 삼색의 보전 교기, 1931년에 사용되었던 럭비부 패넛트, 전 조선 정구대회·전 조선 축구대회 우승기와 우승컵, 마라톤왕 손기정 교우의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보연전과 응원문화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는 1925년 제5회 전 조선 정구대회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쳤다. 보전에는 야구부가, 연전에는 럭비부가 창설되지 않았으므로 주로 축구와 농구, 정구로 대결하였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교가와 학생회가 휘날렸고, 교복과 교모를 착용한 수백 명의 학생들은 교가와 응원을 부르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연희전문이 서양풍의 경쾌한 취주악

으로 응원한 것과 달리 보성전문에서는 태평소를 불고 징과 팽과리를 치며 전통적인 농악으로 응원하였다. 각종 경기에서 양교가 맞붙는 일이 잦아지자, 1930년대 이후 두 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라이벌 의식이 생겨 보연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로 각인되었다. 보연전 응원곡을 복원해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코너, 보연전 응원단장의 사진, 차범근 교우와 축구부원의 사진과 홍명보·박주영 교우의 축구부 유니폼 등 보연전 시절부터 최근 고연전까지의 생생한 자료들을 이번 특별전에 담아내었다.

올림픽과 보전

또한 해방 이후 올림픽에 출전해 모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여러 교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보성전문 재학생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출전 선수 이효창, 문동성 교우가 출전한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올림픽 시상대에 태극기를 가장 먼저 올린 역도 동메달리스트 김성집(상41) 교우를 포함한 자료와 당시 보도 기사까지 전시되었다.

보성전문학교 운동부가 공식대회인 전국대회 출전 100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 열린 특별전은 모교 스포츠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새롭게 발굴된 상당수의 자료를 전시하여 모교 스포츠 역사를 재조명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경영대학 교우들의 특별한 날 ‘교우의 밤’ 2년째 코로나19로 취소

여러 단과대학 교우의 밤의 효시가 된
‘경영대학 교우의 밤’이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되었다.

교우의 밤은 매년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성황리에 치뤄졌고
마지막 행사인 제39회 교우의 밤은
2019년도에 있었다.

교우의 밤은 한 해를 마감하며
교우들 간의 친목과 결속, 동기들과의
우의를 다지는 보람 있는 자리이며
행사 주관학번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교의 발전과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하여 기탁한다.
또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위상을 높인 교우에게
‘올해의 교우상’을 시상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2년간 개최하지 못한 교우의 밤은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황이 진정되어
모든 교우가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
함께 모여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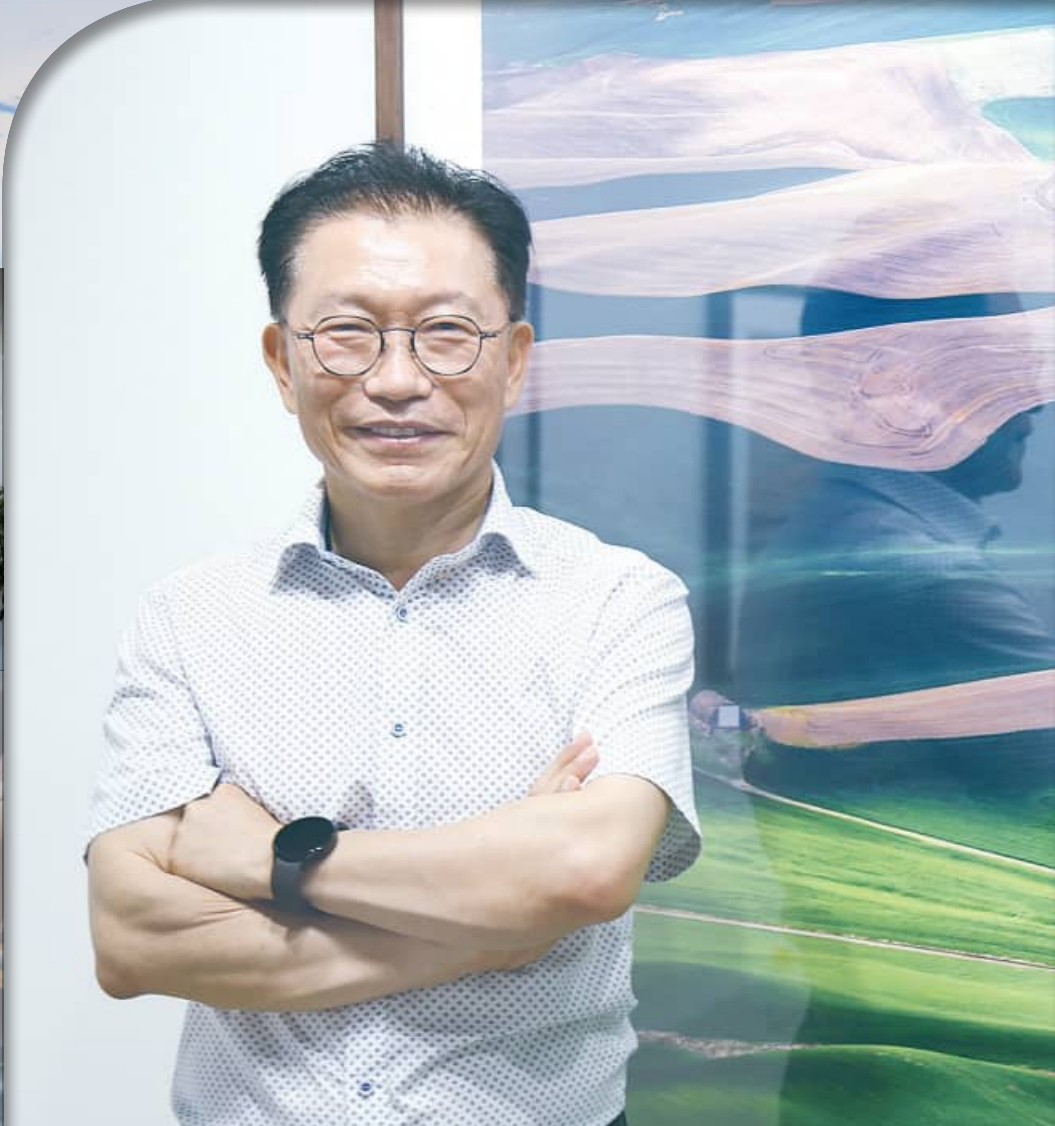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대표이사 (경영81)

Interview





Q1. 교수님과 교수님의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1년 대학 입학 후 본인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 및 자유직업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남들보다 조금 늦은 2학년말에 CPA시험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행운과 노력 덕분에 4학년 2학기인 1984년 10월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4년 11월부터 안건회계법인에 7년간 근무 후 독립하여 1991년 회계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회계사 개업기간은 30년이고 현재 대한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업 종사 기간 동안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회, 법무부장관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 하였고,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 역임 등 업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법무부소년보호정책자문단 회장, 수서경찰서 청소년육성회 회장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대한회계법인은 2002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회계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며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외감법에 의한 등록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의 소속회계사는 약 70여 명이며 전년도 매출액은 약 28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00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업계 순위는 18위로서 매년 약 20%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구성원 중 75% 이상이 Big4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쌓은 회계사이고 구성원의 40% 이상이 회계사 경력 15년 이상이며, 회계사 1인당 생산성은 330백만 원으로써 Big4보다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법률·노무·금융 등 종합컨설팅의 제공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은 실무경험을 가진 실질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농축산업계와 관련된 독보적인 세무회계 자문과 특화된 절세전략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약 5,000여 개 이상의 농축산업계와 동반 성장을 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국내 제일의 업무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Q2. 교수님은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대학 1학년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전국 각 지역을 여행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당시 시국이 혼란한 상황이어서 데모를 자주했고 대학 축제기간에도 데모로 인하여 정상적인 축제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악대 서클에 가입하여 1학년 고연전 때에 종로통을 행진하고 다른 대학 축제 때에 원정을 갔던 추억이 가끔 떠오릅니다.

2학년에 진학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회계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계사는 자유직업이라는 매력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때에 이과 쪽으로 공부하여서 그런지 숫자로 풀어나가는 회계학이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하여 회계사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공부를 시작하였으며, 2학년 겨울방학 때에 학원을 다니고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3학년 때 증설된 정진초 고시반의 덕분으로 계속하여 공부할 수 있었고 4학년 2학기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Q3. 국내의 여러 회계법인 중에서 대한회계법인만의 특화된 분야가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동문 및 과거에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대한회계법인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응집된 업무추진력이 있으며 운영상 배려와 협력으로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기본적인 강점입니다.

회계법인의 업무를 크게 분류하면 회계감사, 세무업무 및 경영자문 3개 분야인데 저희 법인은 이 세 분야에서 각각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들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무업무분야가 가장 업무량이 많고 대외적인 업무추진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 및 농업분야의 세무업무에서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이 대한회계법인에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Q4.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몇 차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어려운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직원들의 이탈입니다. 세무업무의 성격상 데드라인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데드라인을 앞두고 집단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급여 지급 등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과거 두세 차례 유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본인이 담당하던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거래처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가지고 퇴사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래처의 방문 및 관리 담당직원을 복수로 배치하고 담당직원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운영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5. 지난 7월27일(화)에 경영대 발전기금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기부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기부를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외에도 다른 기부활동을 하시거나 장래의 다른 기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회계사로서 전업기간 37년, 개업기간 3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업계 제일의 회계사로 인정받을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헤아려 보니 회계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과 환경을 제공해 준 가장 큰 공로자는 고려대학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나누어 기부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10년간은 계속해서 일하고 싶고, 또 일해야겠다고 다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할 때에 가르침을 준 고등학교에도 기부를 하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교회 및 교단을 통해서도 매년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베풀면서 살고자 합니다.

Q6.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고 현재 바쁘신 가운데서도 모교를 위하여 중요한 활동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먼저 동기들 모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회장 등 임원직을 맡아 후원과 봉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영학과 골프회 회장, 경영학과 81학번 회장, 809 골프회장, 경영대교우회 상임이사 및 고대AMP 감사로 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에 있습니다.

Q7. 사진촬영이 취미활동이라고 하셨지만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사진촬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고, 주로 어떤 종류의 사진을 찍으십니까? 그리고 사진촬영이 교우님의 삶이나 인생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2010년도부터 취미로 사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골프 이외의 다른 취미를 찾고 있던 차에 서울사진클럽에서 CEO과정을 운영한다는 메일을 받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상 시작하면 만족할 때까지 끝장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교습과 출사에 열중하다보니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았고, 그동안 여행을 많이 못했는데 출사를 핑계로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어 사진촬영에 점점 더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주로 풍경사진을 찍고 있으며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고 여행 중 사진을 통해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Q8. 회계사를 준비하는 경영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사전에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 경험으로 생각건대 회계사 시험과 같은 고시공부는 체력이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체력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는 자유직종에 가장 가까운 직업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하는데 회계사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물론 특정기간에는 매우 바쁘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적인 장점을 생각하면서 즉, 회계사의 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더 될 것 같습니다.



Q9.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회계사의 업무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 전산 시스템의 발전으로 회계 및 세무업무를 고객사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 및 세무업무 전체를 일괄로 대행하는 체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업무를 자동화하고 표준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현회계법인 건물 내에 아트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아트센터를 활용하여 인문학 강의, 건강강좌 및 절세전략 등 강좌 개최와 음악회, 사진 및 미술전시회 등의 전시회 행사를 종종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대학 동기들 간의 교류의 장도 만들어 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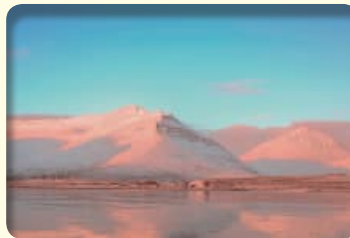
송재현 사진전



| 일 시 | 2021. 09. 23 ~ 10. 30

| 장 소 | DH Art Center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 한강파크빌딩 B2



사진설명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체코 모라비아	미국 워싱턴주 팔루즈
중국 비단지린 사막	아이슬란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高大『정몽구 백신혁신센터』설립에 사재 100억 원 기부



(왼쪽부터)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익선(경영89) 교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이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추진 중인 「정몽구 백신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사재 100억 원을 기부하였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국산 백신 개발에 기여할 백신혁신센터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감염병을 극복하여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평소 국민들로부터 받은 성원

에 보답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해 왔다. 백신혁신센터 기부는 이 같은 사회공헌 철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부금은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를 운영할 고려대의료원에 전달돼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된다. 현대차그룹과 고려중앙학원은 지난 8월 31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기부금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정몽구 명예회장을 대신해 현대차그룹 정익선 회장(경영89)이 참석했으며,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 정진택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과 현대차그룹 김 걸 사장, 공영운 사장도 함께 했다.

고려대의료원은 내년 중 완공을 목표로 기존 고려대 정릉 캠퍼스 건물을 활용,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연구, 산학 협력, 교육을 담당할 ‘메디사이언스파크 (Mediscience Park)’를 조성하고 있다. 메디사이언스파크의 대표 시설인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는 백신, 치료제 기초 연구, 감염병 대응 미래융합 역량을 확보한다. 감염병 연구에 필수적인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시스템과 전 임상 연구 플랫폼 등을 완비해 신약개발 등 다각도의 연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백신 원천기술 확보 여부가 국가의 미래의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www.korea.ac.kr

일진그룹 이상일(상57) 회장, 고려대의료원 백신 개발에 1억 기부



(왼쪽부터) 일진그룹 총괄사장 이동섭(경영89) 교우, 정진택 총장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의료원장=김영훈)이 지난 9월 7일 일진그룹 이상일 회장으로부터 감염병 극복 및 백신개발을 위한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 받았다.

이날 열린 기부식에는 이동섭 총괄사장(경영89)이 참석했으며, 고려대 정진택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일진 이명수 부사장, 박종양 전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73년 일진을 창업해 굴지의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시킨 이상일 회장은 이미 약 80억 원을 모교에 기부해 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감염병 대응 연구기지인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감염병 연구와 백신개발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2021년 9월 9일자 의학뉴스 발취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송재현(경영81) 교우, 발전기금 1억 원 약정



(왼쪽부터) 전재욱 경영대 부학장, 신학기 경영대교우회 사무국장, 송재현(경영81) 교우, 배종석 경영대학장, 박수근(경영81) 교우

송재현 교우가 2021년 7월 모교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했다. 송재현 교우는 7월 27일(화) 오후 4시에 경영대학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했으며, 매년 1천만 원씩 10년 동안 기부할 예정이다. 송재현 교우는 대현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열심히 일을 하자는 의지를 다지면서, 모교와

함께 발전하고 싶다.”며 기부 동기를 밝혔다. 배종석 경영대학장은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항상 학교와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120년 전통의 아시아 리딩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 구승회(경영82) 교우, 경영대학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왼쪽부터) 염승훈 KPMG 부대표, 전재욱 경영대 부학장, 구승회 KPMG 대표(경영82), 배종석 경영대학장, 위승훈 KPMG 부대표, 최이현 KPMG 상무

구승회 교우(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가 경영대학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구승회 교우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삼정회계법인 내 교우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길 바란다.”라며 삼정회계법인과 학교가 함께 발전해 나가길 소망하였다. 배종석 경영대학장은 “2030년 아시아 1위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노력 중에 있으며 인격과 실력을 갖춘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여 인류가 더불어 좋

은 삶을 누리도록 기여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교우님의 모교를 위한 사랑과 정성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구승회 교우의 개인적 기부 외에도 KPMG 삼정회계법인 측에서도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며 모교를 향한 사랑을 실천 중에 있다.

쌍둥이 교우 창업기업 (주)트위니, 자율 주행로봇 기증



(왼쪽부터) 천영석(경영00), 정진택 총장, 천홍석(전기전자전파공학00)

쌍둥이 형제인 (주)트위니 공동 대표 천영석(경영00) 교우와 천홍석(전기전자전파공학00) 교우가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 자율주행 로봇을 기증하였다. 기증약정식은 2021년 8월 23일 3시 고려대 본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천영석 교우와 천홍석 교우, 정진택 총장과 장길수 기획예산처장, 송혁기 대외협력처장, 차영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에서 수학한 쌍둥이 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을 이끌고 있어서 자랑스럽고 과학도서관이 바뀐 시대에 걸맞은 시설로 변화하는데 힘을 보태주어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두 교우가 기증한 로봇은 ‘나르고’로 3D-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넓고 복잡한 환경에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로봇을 기증받은 과학도서관은 단행본실의 반납 자료를 서가에 재배치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정수(경영11) 교우, 경영대학 장학금 1천만 원 기부



(왼쪽부터) 전재욱 경영대 부학장, 황준호 경영전문대학원 기획부원장, 한정수(경영11) 교우, 배종석 경영대학장

한정수 교우가 경영대학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하였다. 기부식은 2021년 8월 3일 학장실에서 진행되었다. 한정수 교우는 “경영대 선배님들의 기부 문화를 꾸준히 지켜보며 학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졸업 후에 후배들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건넬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며 “졸업 후 큰 액수의 기부는 어려웠지만, 규모가 작더라도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었고 여유가 생긴 지금에서야 스스로 부끄

럽지 않은 만큼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기부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 한정수 교우는 “젊은 졸업생의 기부가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다.”라면서 “제 기부가 후배들의 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힘내서 후배들이 기부를 꿈꿀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영신문 제694호, 8월 23일자 대외협력처 기사 발췌

■ 교우동정



구자열 (경영72/고려대학교 교우회장)

2021년 9월 29일 구자열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이 전북도와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지니포럼 개막식에서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



정현석 (경영86)

2021년 8월 3일 정현석 교우가 딜로이트컨설팅 코리아 부사장에 선임되었다.



정동창 (경영78)

2021년 9월 1일 정동창 교우가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유병재 (경영92)

2021년 10월 1일 유병재 교우가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한두희 (경영83)

2021년 7월 27일 한두희 교우가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김홍석 (경영96)

2021년 8월 4일 김홍석 교우가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에 선임되었다.



권대영 (경영86)

2021년 7월 30일 권대영 교우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선임되었다.



강정구 (경영00)

2021년 7월 1일 강정구 교우가 하버드대 회계학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권오상 (경영78) 2021년 10월 9일 장남 권혁성 군
김병수 (경영78) 2021년 10월 3일 아들 김형준 군
이윤찬 (경영78) 2021년 10월 9일 차녀 이수연 양
강현구 (경영79) 2021년 10월 30일 장녀 강지원 양
권영민 (경영79) 2021년 11월 6일 아들 권오정 군

김영한 (경영79) 2021년 11월 6일 아들 김규동 군
손영태 (경영79) 2021년 11월 7일 아들 손성준 군
최수규 (경영79) 2021년 10월 23일 장남 최재호 군
박점열 (경영81) 2021년 11월 7일 딸 박유정 양
홍성현 (경영07) 2021년 11월 6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경식 (상53 / 93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2021년 10월 15일 본인 별세
송수향 (상55) 2021년 10월 10일 본인 별세
신동수 (상60) 2021년 10월 21일 본인 별세
박제문 (상61) 2021년 8월 5일 본인 별세
정태욱 (경영78) 2021년 10월 20일 병부상

조항웅 (경영78) 2021년 10월 26일 부친상
주대준 (경영78) 2021년 8월 1일 본인 별세
곽우석 (무역79) 2021년 8월 22일 병부상
박 철 (무역86) 2021년 7월 30일 병모상
한상일 (경영90) 2021년 10월 8일 부친상
강민수 (경영97) 2021년 7월 26일 부친상



55 회장 이득주

동기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글 : 이득주 회장) ●●●

55학번 동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rona Pandemic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 우리 동기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행업계, 숙박업계, 운수업계, 소상공업계, 대기업, 교육기관, 종교 시설 등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면 활동을 하는 모든 업무가 마비·중단 되고, 인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억제 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조물주가 인간을 저주하고 용심을 부리면서 우리들의 생활을 점점 더 답답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55동기 회원들을 포함한 교수님들의 활동에도 예외 없이 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간(2차 서신발송 이후) 별다른 업무를 추진할 수 없었음은 Corona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급박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월 1회 정도 대다수의 동기분들께 직접 전화를 걸어 단편소식과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공간(時空間)을 메꾸어 나갔습니다.

대다수가 평안하시지만, 몇몇 동기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분은 가족이 전화를 받아서 대신 전하는 건강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화 통화가 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수용가의 요구에 의해 통화가 정지되었다는 멘트가 나오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전화번호가 없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진행되는 궤적과 흐름을 직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간 소생이 파악한 단편 소식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음 : 윤성완 동기의 경우 2020년 9월에 작고하였다는 부음을 최근에 접하였음
- 주소변동 및 확인 : 김경수 동기 등 6인의 경우 주소가 변경 되었으며, 홍순갑, 장호진 동기는 소재가 불분명함
- 통신망 변화 : 통화 정지, 통화 불통 등이 3건이며 정영호 동기의 연락처를 파악하였음

동기분들의 소재나 상황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본인들이 소생에게 알려주어야 확인이 됩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생사여부와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동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가 요구됨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회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건강 백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왼쪽부터)이득주 55동기회장, 유상욱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 강성찬 교수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하반기 임원회 개최 ●●●

10월 12일 13시 선릉역 1번 출구 앞 상제리제 센터 A동 2층의 '동보성'에서 정시균 동기회장 외 감사 엄무성, 최민자, 재무 김윤장, 총무 이채영, 초암회장 이복성, 이월회장 성영일, 사목회장 박인우 등 임원들이 만나 하반기 행사인 11월 국내여행과 12월 송년행사 및 차기회장 선출 문제를 논의하였다. 장시간 논의 끝에 11월 행사는 하기와 같이 추진기로 결정하고, 송년행사는 예년과 같이 논현역 앞 '취영루'에서 13시에 갖기로 하였다. 또한 후임 회장 문제는 회장이 맡아서 후보자를 물색하기로 하였다.

#입학 60주년 및 팔순 축하 행사#

1. 행사 내용 : 국내여행과 팔순 축하 잔치
2. 일정, 행선지 : 2021.11.16. ~ 11.19. (3박4일)
 - 1일차 : 서울 출발 전주행(오찬/한옥마을 관광) - 진안, 남원 경유 여수행(석식/관광 후 숙박)
 - 2일차 : 순천, 승주 관광 후(중식) - 통영, 부산행(숙박)
 - 3일차 : 부산 관광 후(숙박) *울산으로 변경도 가능
 - 4일차 : 영덕, 삼척, 강릉, 속초 경유(중식) - 서울 도착
3. 교통편 : 우등고속 버스
4. 숙박 : 호텔급 2인실
5. 참석 범위 : 본인 및 배우자
6. 참가비 : 1인당 기준 책정(특별 찬조금 활용 최저액수 설정)
7. 참가 신청 : 각 소모임 별 취합/입금계좌는 동기획 계좌 활용
8. 신청 마감 : 2021.10.25.
9. 기타 사항 : 여행자보험을 위한 주민번호 제출



소모임 소식 ●●●

1. 매월 4번째 월요일 기흥 코리아CC에서 라운딩하는 호비회에서는 무더위가 끝나고 가을의 들녘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지난 9월 27일, 2개월 만에 동기들이 네 팀으로 나누어 라운딩하였으며, 동기회 하반기행사 개최와 차기회장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 모임은 10월 25일에 갖기로 하였다. 이날 라운딩에는 정시균 회장 외에 김순구, 김우찬, 김홍근, 남문희, 민병직, 박광근, 안희민, 원용계, 이병우, 이복성, 이준웅, 이춘재, 이춘원, 정홍진, 최 섭 등 16명이 동참하였다.
2. 매월 셋째 금요일에 만나는 '도암회'는 코로나사태에도 매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난 8월 20일, 9월 24일 여의도 리버타워 빌딩 2층 '하반'에서 오찬모임을 가졌으며 박윤서 동기가 모임 비용을 부담해주었다.
3.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5월 동기회 전체 모임이 취소되었고, 홀수 달 셋째 화요일의 초암회, 홀수 달 둘째 화요일의 광암회, 짝수 달 둘째 월요일 만나는 이월회, 매월 넷째 목요일 산행하는 사목회, 2개월에 한번 모임을 갖는 여학우회, 홀수 달 셋째 일요일 사찰순례를 다니는 불자회 그리고 모든 부정기 모임들이 취소되어 왔으나, 11월 하순경부터는 정상화가 예상된다.



경영61 도암회

69 회장 이재선 / 총무 조현룡

변함없는 월례 및 수시 산행으로 다져지는 동기 우정 ●●●

- 7월 17일(토) : 관악산 계곡 탁족 피서, 염소탕으로 몸보신
- 8월 7일(토) : 관악산 옥녀봉 계곡 산행(탁족 피서 겸)
- 8월 21일(토) : 우중 옥녀봉 산행, 하산 시 빠른 지름길 찾아 우산 받쳐 쓰고 강행군 끝에 정자에서의 꿀맛 같은 술과 간식
- 9월 4일(토) : 청계산 매봉, 며칠 전 단비로 불어난 계곡 물소리 감상, 하산 후 삼겹살 파티 => "바로 이 맛이야 ^^"
- 9월 18일(토) : 북한산 탕춘대 경유 향로봉에서 금선사 탐방 후 하산, 돼지구이 + 소맥으로 뒤풀이
- 10월 2일(토) :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2시간 정도 담소하며 트래킹, 경마장 옆의 유명한 별미 칼국수 즐김



경영69 탁족 피서

71 회장 김재원 / 총무 황성룡

골프회 소식 ●●●

- 71학번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식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야외에서의 모임을 간략히 갖고 있다.
- 골프회장은 한 옥 동기이고 총무는 김재원 동기이며 진양밸리CC에서 소규모로 모여 매월 1회 골프를 즐기고 있다.
- 사진은 코로나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경영71 골프모임

산우회 소식 ●●●

- 산악회장은 오형중 동기이고, 총무는 김병주 동기이며 월 1회 산행하면서 건강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집합금지로 인해 산행은 많이 모이지 못하고 16명이 4팀씩 나누어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다.
- 올해 들어 유난히 파란하늘에 날씨가 좋은 날이 많아 산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았다. 코로나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예전처럼 산우회 모임의 정상화를 기대해본다.
- 사진은 코로나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경영71 산우회

74 경영회장 조균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중견기업학회 창립멤버 모임 ●●●

· 일 시 : 2021년 7월 29일 (목)

지금부터 10여 년 전의 중견기업학회 창립멤버회원들 모임을 오늘 점심시간에 가졌다. 중견기업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과 경영자들이 국가경제에 많은 공헌을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때문에 식당도 못 가서 대신 도시락을 시켜 먹고 맛있는 차도 한 잔 하였다. 모임 주선하느라 애 많이 쓴 반원익 회장에게 감사드린다.



84 경영회장 윤영원 / 경영총무 이순규

경영84 기업탐방

: 나이스 디앤알 강용구 동기를 만나다 ●●●

팔사랑 회장단 교우 회사 탐방 시리즈로, 지난 10월 14일은 나이스 디앤알 대표이사 강용구 교우를 방문했다. 나이스 디앤알은 마케팅 및 금융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품질 조사 업무를 사업 영역으로 하는 기업이다. 대표 강용구 동기는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ICT, Digital Transformation, Big Data, Mobile, 블록체인 및 NFT(Non-Fungible Token)를 넘나들며 이어졌다. 회장단은 오프라인 모임이 재개되면 강용구 교우의 사업 영역, 기술과 시장 영역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탐방을 마무리했다.



경영84 강용구 대표와 이순규 경영총무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 학생대표 윤소담(경영21)

온라인 Good Evening 토크콘서트 외 KUBS Ladies 소식 ●●●

코로나-19로 인해 KUBS Ladies의 많은 정규, 수시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 대신 KUBS Ladies는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를 통해 많은 학우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또한 KUBS Ladies 집행부원 모두는 온라인으로 보다 알차고 순조롭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온라인 Good Evening 중간행사-토크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KUBS Ladies / 마케팅_이희주 멘토 신연수, 최지우 멘티 / 법조계_이유진 멘토 김영경 멘티 / 컨설팅_양지현 멘토 박은서 멘티

하고, 페이퍼 타이거의 대표로 활동 중인 김은선(경영02) 교수님, 법무법인 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예라(경영05) 교수님, 신한카드 마케팅 팀에서 활동 중인 우나원(경영13) 교수님, 삼일회계법인 감사팀에서 활동 중인 권지원(경영13) 교수님, 그리고 한국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국제협력팀에서 활동 중인 조윤주(경영13)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람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1학기에 이어, 집행부 차원에서 온라인과 비대면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호랑이 등판', 선배님들의 커리어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엿볼 수 있는 '쿵스 워먼'과 같은 SNS 콘텐츠를 연재해 KUBS Ladies 공식 인스타그램(@kubs_ladies)에 게시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여 KUBS Ladies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었다.

2020년부터 활성화하기 시작한 개강 이벤트 또한 매 학기마다 새로운 주제와 상품으로 구성되어 진행 중이며, 이는 올 9월에 진행된 Blossom 17기 신입부원 모집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는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2차 조별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Good Evening 클로징 행사와 매 학기 진행되는 연사 초청 강연 행사인 Dream Concert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집행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KUBS Ladies를 향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공인회계사교우회 총회 회장 정석우(경영80)

신입회원 환영회를 겸해 비대면으로 열린 2021년 공인회계사교우회 총회 ●●●

공인회계사교우회는 지난 10월 6일 모교 경영관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임원 및 실무진 최소인원과 온라인 참가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2021년 사업 내역 및 수입지출 결산내역 보고, 정진초 지원금 지급, 합격자 축하패 수여 등을 진행하였다. 올해 모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자 152명을 배출하여 연속 6년간 국내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우수합격자 최연소 이새롬(경영19)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서현회계법인 대표로 취임한 배홍기 교수(경영81)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왼쪽부터)정석우 고려대 공인회계사교우회장, 이새롬(경영19), 배중석 경영대학장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수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 - 922 - 3762 · FAX 02 - 922 - 3763 · E-MAIL kubs@kubs.or.kr

토막상식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 MOT

- 스페인의 투우경기 용어 “Momento de la Verdad”를 영어로 번역한 것임.
 - 투우사가 정면으로 달려드는 투우의 목 뒤 급소를 칼로 정확히 찔러 투우와의 긴 대결을 끝내는 절대절명의 순간으로,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을 뜻함.
- 마케팅학에서는 영업사원이 최초로 고객과 만나는 「고객접점」을 뜻함
 -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
- 고객접점의 최초 15초 내에 회사, 제품, 사원에 대한 고객의 이미지가 형성됨.
- 이 때 어느 한 요소라도 “0점”을 맞으면 다른 요소들에서 100점을 얻어도 “ $0 \times 100 = 0$ ”의 「곱셈 법칙」이 적용되어 마케팅이 실패로 돌아간다 함.
- 스웨덴의 경제학자 리처드 노먼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임.

마음을 움직이는 짧은 글귀

To handle yourself, use your head ;

To handle others, use your heart.

- Eleanor Roosevelt -

Never, Never, Never give up!

- Winston Churchill -

*자신의 모교인 해로우중학교 졸업식에서의 1분간에 걸친 가장 짧은 연설



도서명 | 엔터테인먼트 사이언스 I · II · III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저 자 | 토르스텐 헤니그-투라우 외

출판일 | 2021.6.30. (I) 2021.7.20. (II) 2021.8.20. (III)

번 역 | 이청기(경영79) 외

독일 저명 경제학자 토르스텐 헤니그-투라우와 미국 마케팅 학자 마크 B. 휴스턴이 함께 쓴 '엔터테인먼트 사이언스'(한울아카데미 펴냄)로 이청기 교우 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소속 학자 6명이 번역을 맡아 세 권으로 펴냈다. 이 책의 특성과 매력은 가장 현대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 지역의 학문적 성과를 결합해 다양한 장르의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성공 법칙을 경험적·이론적·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도출해 제시한다.

또 '기획·투자·제작·배급·유통·이용'이란 가치 사슬 전 과정에서 적용돼야 할 이론과 법칙, 전략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실용서 성격도 있다. 한마디로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갖는 흥행과 실패의 불가측성에 주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실무 경험, 정교한 이론,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동원하였다.

'I 권 엔터테인먼트 경영·경제학'에서는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사이언스의 시간이다'라는 주제로 경영·경제학의 관점에서 기본 원리를 다루며 상품과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가치·수익창출, 소비 측면을 다룬다. 'II 권 엔터테인먼트 상품 경영론'은 상품의 경험 및 탐색 품질, 브랜드, 상품 개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며 'III 권 엔터테인먼트 통합 마케팅'에서는 트리플 미디어 전략과 유통, 가격, 통합 마케팅 등을 소개한다.

도서명 | 시험 논술과 논문 글쓰기 비법을 제시한 『A+ 논술과 논문 작성법』

저 자 | 유순근(경영79)

출판일 | 2021.8.25

출판사 | 박영사

저자는 학습이론과 창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독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논술과 논문 지침서인 『A+ 논술과 논문 작성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논술과 논문 작성 비법을 개념, 구조, 도해, 공식, 간단 예제와 심화 예제를 통해 제시한 논술과 논문 지침서이다.

말 속에 깊은 맛이 있어야 하고 글 속에 깊은 향기가 있어야 훌륭한 글이다. 깊은 맛과 은은한 향기가 있는 글은 본질과 형식을 갖춘 글이다. 이러한 글을 쓰려면 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가듯이 글의 품미와 생각의 향기를 겸비한 글을 쓰는 기법이 필요하다. 내용도 좋고 꾸밈도 좋은 글은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책은 본질과 형식을 두루 갖춘 논술과 논문을 작성하는 기법을 제시한 책이다.

논술편에서는 논술의 유형, 논증, 논술의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술의 구조와 단락 쓰기는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단락은 주제문, 설명, 증거, 증거 분석과 연결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형식에 맞는 내용이 서술되어야 훌륭한 논술이 된다. 논술편은 고교생, 대학생, 취업 준비자와 지도 교사에게 유용할 것이다.

논문편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문제, 가설수립, 구조, 서론, 문헌검토, 개념적 틀, 연구방법론, 연구제안서, 연구결과, 논의, 결론 및 인용 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자신이 관심이나 경험이 있는 영역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연구문제로 전환하고, 가설을 수립하여 개념적 틀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논문편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에게 유용할 것이다.



도서명 |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
저 자 | 이수영(경영80) 외 3명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21.5.3

한국폴리텍1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수영 교우와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등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함으로써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일자리 성공전략,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성공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책은 초고령화를 앞둔 한국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와 기업이 초고령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적인 실천 전략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기본서가 될 것이다.



도서명 | 이야기 모금 원리
저 자 | 이원규(경영86)

출판사 | 나눔복스
출판일 | 2021.5.1

20여 년간 모금 전문가로 활동해 온 (주)공유 공동대표 이원규 교우가 낸 책이다.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에서 모금활동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과 모금 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험 및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금의 이론, 방법, 여러 규모의 모금행사, 모금윤리 등 모금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풍부한 사례를 이야기로 구성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기부자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모금 사업, 기부자, 모금가, 수혜자, 사회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부자 중심 모금'을 통해 성공 노하우를 전한다.



도서명 | 10만 달러 미래-기회와 추월의 시간
저 자 | 권세호(경영87)

출판사 | 청년정신
출판일 | 2021.7.27

미래와의 전쟁,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 밀려오는 대전환의 파도에 올라타 멋진 서핑을 할 것인가, 휩쓸려 추락할 것인가. 기회와 추락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크게는 정부와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도전 과제들과 더불어 우리 개인들이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대전환의 시대가 가져오는 도전들 또한 크다.

과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미래는 어떤 얼굴일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점집을 찾아갈 것인가?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변화를 인문과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통찰할 것인가. 도도한 시대의 조류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추월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승자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 글로벌 경제전문가 권세호 박사가 미래의 시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 10만 달러 대한민국으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베리아반도

여행기

2



허창무

상65·시인·수필가
(前)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現 주택금융공사 전신) 임원 역임

2017년 11월 26일(일), 현지 여행
이튿날이다.

어제저녁 호텔에서 목욕하고 잠을 푹 자고 휴식을 취하고 나니 아침에는 피로가 풀렸다. 그러나 여행 초기 걱정했던 방 동료의 코골이가 현실로 나타났다.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떨어져 아주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어제저녁 호텔에 들면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다. 스페인에서는 지하 1층에 해당하는 층을 0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 마구간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카운터와 식당이 모두 지하 1층인 0층에 위치한다.

다시 카탈루냐광장에서 가우디 거리 등 중심가를 지나며 시내 관광을 했다. 어제저녁에 보았던 시내의 모습과 오늘 낮에 보는 시내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 말하자면 어둠 속에 가렸던 유럽의 건축문화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건물들은 이방인의 경탄을 자아내기에 손색이 없었다.



밀라저택



로마에서, 빈에서, 프라하에서, 그리고 파리에서 보았던 각종 건축물의 전시장 같은 바르셀로나의 건축물을 보면서 어젯밤의 실망감을 상쇄하고도 남는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이 도시가 중세의 건축물에서 근대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가우디의 공헌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 페드레라 전사 옥상의 전사 투구를 닮은 굴뚝

먼저 플라타너스 거목의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는 파세이그 데 그라시아(Passeig de Gràcia) 대로를 따라가면 파스쿠알 이 폰스 저택, 로카모라 저택 등, 1890년대 이 도시의 부르주아들이 살았던 화려한 고급저택들을 보게 된다. 그 거리를 더 따라가면 콘셀 데 센트(Consell de Cent)와 아라고(Arago) 거리 사이의 직선 구간에서 좌측 포장도로에 '디스코던트 블록'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양식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레오 모레라(Leó Morera) 저택으로 풍부한 꽃무늬 장식이 특징이다. 조금 더 가면 아마틀러(Amatller) 저택과 바틀로(Batlò) 저택이 나오는데, 전자는 건물 전면 삼각형 지붕모형의 양쪽 사면에 사각형을 계단식으로 처리하여 중세의 분위기가 진하게 풍기고, 후자는 사각의 창문마다 물고기 아가리 같은 난간을 만들어놓고 지붕에는 이슬람사원 같은 십자가를 만들어놓은 것이 특색이다.

더 따라가면 82번지에 모더니즘 건축양식을 폭발적으로 표현한 작품과 마주친다. 이것은 안토니 가우디의 걸작인 밀라(Milà) 저택으로 세간에는 '라 페드레라(La Pedrera)'(채석장)로 잘 알려져 있다. 1984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건물은 아방가르드적인 요소가 담긴 대단한 손질로 완성되었고, 완성 당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은 이 저택이 모더니즘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20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물 중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 건물은 파동 형태로 지어진 거대한 석조 건물인데, 특이하게 왜곡된 모습의 통풍공간들이 마치 돌들이 흘러 내리는 듯 유기적인 모습이다. 지붕 위의 굴뚝과 환기시설은 추상적인 모자이크 나선형의 변화무쌍한 양상으로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 준다. 채석장이라는 건물의 이름과도 걸맞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작품이다. 이밖에도 디아고날 거리 모퉁이에 있는 로버트(Robert) 궁전, 카탈루냐 정부 지역사무실인 몬타네(Montaner) 궁전, 오늘날 바르셀로나 건축대학의 주 사무실인 카사데스(Casades) 궁전 등 수없이 많다.

바르셀로나가 모더니즘 양식과 명확히 구분되는 이유는 안토니 가우디가 이 도시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그의 흔적을 강하게 남겼기 때문이다. 즉 "가우디는 19세기 초 카탈루냐에서 유행했던 낭만주의 회복 운동인 르네상스(Renaixença)와 모더니즘의 희열을 경험했으나, 그 중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그의 독특한 삶의 비전과 건축양식이 그를 정치와 예술적 유행 사조에서 초연해지도록 했다."라고 사계의 전문가인 조안 바세로다 노벨은 말했다.



라 페드레라 전사 옥상



구엘공원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은 이외에도 피게라스(Figueras) 저택이며, 구엘 부속 건물이며, 테레시안(Teresianes) 대학 등 도처에 있지만, 마지막 걸작 중의 하나는 구엘 공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에우세비 구엘은 가우디에게 펠라다(Muntanya Pelada) 산이라고 알려진 지역에 매입해둔 5만 평 규모의 대지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을 의뢰하였다. 대지는 깨끗한 환경에 바다와 바르셀로나 전경이 모두 보이는 최적의 위치였다. 주택단지 안에는 지형을 고려한 도로망과 다리, 계단 등을 갖춘 삼각형 모양의 약 60개의 분양지 건설이 계획되었다. 구엘은 정원문화가 발달한 영국식 고급 콘도미니엄을 건설하길 원했고, 따라서 이름 또한 영어로 Park Güell로 지었다. 그러나 건축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단지 분양지의 6분의 1만을 건설할 수 있었으며, 건물의 용도 또한 거주지로 제한되었다. 당시 분양가격도 비쌌고,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거리도 멀어 단 두 부지만 분양되었다. 이 두 집 중 분홍색 건물이 생전에 가우디가 거주하다가 그의 사후 지금 가우디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이고, 나머지 흰색건물이 카사 트리야스(Casa Trias)로 구엘의 손자가 살고 있다고 한다.

구엘과 가우디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예술가와 후원자 간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우정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가우디는 구엘 공원 건설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예술창작의 과정을 통해 도시 건설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1900년부터 시작한 구엘 공원 건설은 초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분양지 매입조건의 문제, 주택 단지의 특성, 비교적 높은 언덕으로의 적합한 운송수단의 부족 등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에우세비 구엘은 1914년 공사 중단을 결정하였다. 1918년 에우세비 구엘이 사망하면서 그의 상속자들이 이곳을 바르셀로나시에 판매하기로 하고, 1922년 시청이 매입을 결정한 후 4년 후인 1926년 공원으로 개방하였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198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구엘 공원의 주 정문으로 들어서면 입구에 두 채의 건물이 있다. 두 채 모두 깨진 세라믹 조각으로 표면처리가 되어있고 독창적인 카탈루냐식 아치형 지붕모형을 하고 있다. 왼쪽은 원래 수위실 용도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서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오른쪽은 주택단지의 경비 사택이었으나 지금은 바르셀로나 역사박물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두 건물의 이름은 그림 형제 동화에서 따온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이름이다.

입구를 지나면 모자이크로 된 도마뱀 분수가 있고, 그 뒤에는 살라 이포스틸라(Sala Hipòstila)라는 공간이 있다. 여러 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데, 이 천장 가장자리의 난간 위는 햇볕을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라믹 벤치가 된다. 살라 이포스틸라는 장이 서기도 하고, 모임이 열릴 수도 있는 장소이지만, 물을 모으는 곳이기도 하다. 천장으로 내린 비는 가운데 뚫린 기둥을 통해 아래로 흘러내린다. 배수로 역할을 하는 기둥을 따라 흘러내린 물은 기둥 밑바닥에 설치된 저수 창고에 모인다. 이는 로마의 수도시스템을 가우디가 활용한 것이라고 한다. 살라 이포스틸라 위로는 일부는 산을 굴착 하고, 일부는 살라 이포스틸라가 지탱하는 공간을 이용하여 자연의 광장이라는 공연장이 조성되어있다. 전형적인 가우디식 철문은 옛 농가였던 까사 라라르드의 정원 쪽으로 향하는 길에 있다.

문을 지나면 윗부분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르티코(柱梁玄關)가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큰 물결을 연상시킨다. 포르티코의 바깥쪽은 여러 개의 버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한 개는 여인이 빨래에 필요한 집기들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이어서 '빨래하는 여인'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돌기둥이 세워진 산책로 또한 주변 환경과 최대한 어울리도록 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부지를 닦을 때 나온 돌을 활용한 것이다. 빨래하는 여인의 포르티코는 나사 모양의 기둥이 있는 나선 비탈길에서 끝난다. 이 비탈길은 그 배열 자체로 매우 우아한 2층 구조를 형성하여 발코니의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해준다. 아래쪽에 위치한 까사 라라르드는 1931년 공영 공원으로 모습을 바꾼 후 이 건물에 발다리 레삭 공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구엘 공원에는 감탕나뭇과의 관목이며, 벽오동, 사시나무, 동백나무, 하늘을 찌르는 사이프러스라는 측백나무, 후박나무, 종려나무, 바나나 등의 목본에, 한국의 구절초를 닮은 국화와 식물을 비롯하여 용설란이며, 수많은 꽃을 피우고 있는 이름 모를 초본 식물들이 자웅을 겨루고 화단을 장식하고 있다.

구엘 공원을 돌아보고 시내로 들어왔다.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 감독까지 맡아 1882년 3월 19일(성 요셉 축일)에 시작했으나, 1926년 6월 죽을 때까지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가 죽은 후에도 시민전쟁의 발발로 1936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를 진행 중인 성가족대성당(La Segrada Família)을 찾았다. 그것은 이 도시에서 대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오늘도 공사에 열중한다고 한다. 한때 화재로 평면도와 각종 도안이 있던 가우디의 서재가 소실되어 난관에 부딪혔으나, 그의 제자들과 신도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도안과 모형을 찾아내어 1952년 공사를 재개하고 1976년에 부분적인 완공을 보았다. 2010년 11월 7일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축성



구엘공원 포르티코 돌기둥





성가족대성당 김대건신부
이름이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바르셀로나 성가족대성당

(祝聖)되었고, 작은 바실리카(Basilica)로 선언되었다. 바실리카 성당이란 교황으로부터 특권을 받아 일반성당보다 격이 높은 성당을 말한다.

이 성당은 가우디 건축의 백미로 규모 면에서나 예술적인 면에서나 유럽의 다른 성당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천재의 비전과 구원(久遠)의 소망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도록 하는 수많은 상징물을 그가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중세적 종교관에서 영감을 받고, 몬세라트의 톱니 같은 바위산에서 암시를 받았다는 그는 삶을 불태우는 열정을 이 사업에 쏟아 부으며 거대한 도전을 시도했으나, 그의 생전에 실현하지는 못했다. 원래 가우디가 설계한, 출생을 의미하는 남쪽 청색의 문에서부터 죽음을 의미하는 북쪽 적색의 수난의 문, 그리고 건축 중인 황색의 서쪽 부활의 문(환희의 문)에 부착된 조각상 하나하나에 부여된 의미를 가이드는 자세히 설명했다. 각 문에 치솟는 네 개씩의 탑은 총 12개로 열두 제자에 해당하며, 4개의 종탑은 4대 복음서를 의미하고, 170m 높이의 2개의 돔은 각각 성모와 그리스도에게 헌정되었다. 한국인들에게 경이적인 것은 북쪽 수난의 문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한 칸에 새겨진 시성(諡聖)된 김대건 신부의 이름이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면서 피카소미술관과 대성당을 못 본 것이 가장 아쉬웠다. 1881년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14세에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와서 대체로 18세 무렵까지 청소년기를 보냈다. 1963년, 피카소미술관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개관된 바르셀로나 피카소미술관은 중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보른 지구의 한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어릴 적부터 그랬던 낙서부터 스케치와 밑그림을 포함한 회화, 판화, 드로잉 등이 약 3천 점이나 소장되어있는데, 피카소 개인비서가 초기작품을 많이 소장했다가 바르셀로나시에 기증하여 개관되었다고 한다. 가이드는 그 부근을 지나면서 저 건너편에 그 미술관이 있다고 언급만 했다.

오후 2시경 바르셀로나 출발, 4시간 버스를 타고 6시경 사라고사에 도착했다. 사라고사 지방은 처음에는 카탈루냐주에 속했으나, 지금은 분리되어 사라고사주가 되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연결하는 요충지 사라고사는 2천 년의 역사를 지닌 스페인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지금은 사라고사주의 주도이다. 현재의 인구는 약 70만 명. 이 도시는 스페인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도시 중 하나이며, 이람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사라고사 필라르 대성당을 보러 갔다. 가는 도중 에브론 강가 피에드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성당의 야경에 혼이 나갔다. 강물에는 필라르 대성당의 전경이 드리워져 잔잔한 물결에 출렁이고 있었다. 정작 성당에 가기도 전에 사진 찍느라 정신들이 없었다.

필라르는 스페인어로 기둥이란 뜻으로 신앙을 전파하러 온 아랍에게 성모마리아가 나타나 기둥을 주시며 성당을 만들고 떠나라는 설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사라고사 필라르 대성당



사라고사 깃발

바실리카 필라르 대성모성당은 바로크양식의 건축물인데, 화려한 타일로 장식된 11개의 지붕으로 유명하다. 성당 안 천장에는 '순교자의 여왕 (레지나 마르티룸(Regina Martyrum))'이라는 프레스코화가 있다. 고아가 그의 고향인 이 성당에 그린 화려한 성화이다. 또 우측 중앙에는 미사일 두 개가 걸려있다. 성당 안에 웬 미사일이나고? 스페인 내전 때 미사일이 이곳에 투하되었으나 불발했던 것으로, 이곳 사람들은 성모마리아가 성당을 지켜주셨기에 무사했다고 믿는다. 중앙 제단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에 무엇인가 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곳에 성모가 주셨다는 기둥이 있어 그 기둥에 입 맞추고 만지면서 기도하기 위해 그런다는 것이었다. 성당 앞에는 여러 가지 상점가로 연결되어 있다. 일행 중 더러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 이도 있고, 기념품점을 둘러보는 이도 있었다.

내가 필라르 대성당의 내부 이모저모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인솔자 유씨가 성당 안 한쪽 구석으로 나를 끌고 가며 잠깐 보자고 했다. 이유는 여행객 중 한방 동료와의 불화 때문이었다. 나처럼 혼자 온 M씨 출신 C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어제저녁 그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들으면 C씨가 안하무인이며, 일행 중 여성들에게 희롱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농담을 건네어 인솔자로서 그에 대한 대처가 매우 곤혹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행 중 가장 연장자인 나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나는 어제저녁에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하라고 했다. C씨는 그에게 고성을 지르고 귀국하여 여행사에 자초지종을 말하여 여행객에게 갑질을 하려는 인솔자의 문책을 엄히 요구하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인솔자에게 관광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여행객들을 탈없이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한 관광객이 조금 섭섭하게 대할지라도 참고, 필요하면 설득도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대인 그가 50대인 C씨 보다 나이도 어리므로 심술부리는 형을 다독이는 마음으로 처신하면 C씨의 태도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악화하여 C씨가 귀국하여 소속여행사와 사정기관 등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 결국 피해는 인솔자에게 가는 것이므로 이런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타일렸다. 그래서 그는 다투고 난 다음 미리 소속여행사에 사태의 추이를 전했노라고 했다. 인솔자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칫하면 그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곧 C씨를 만나 그의 말을 들어보고 타이틀 일이 있으면 타 이르겠다고 인솔자를 안심시켰다.

나는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그들 간의 분란이 커지면 전 여정이 볼썽 사납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손을 써야 했다. 내가 보기에도 C씨는 좀 언행이 경박하고 당돌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진상을 알아야겠기에 바로 C씨를 만났다. C의 말은 좀 달랐다. 사태가 악화된 데는 인솔자의 방약무인한 태도에도 있었다. 그는 이야기 도중 “저런 못된 놈은 다른 여행객들을 위해서도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하고 기염을 토했다.

나는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그들 간의 분란이 커지면 전 여정이 볼썽 사납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손을 써야 했다. 내가 보기에도 C씨는 좀 언행이 경박하고 당돌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진상을 알아야겠기에 바로 C씨를 만났다. C의 말은 좀 달랐다. 사태가 악화된 데는 인솔자의 방약무인한 태도에도 있었다. 그는 이야기 도중 “저런 못된 놈은 다른 여행객들을 위해서도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하고 기염을 토했다.

사라고사 필라르 대성당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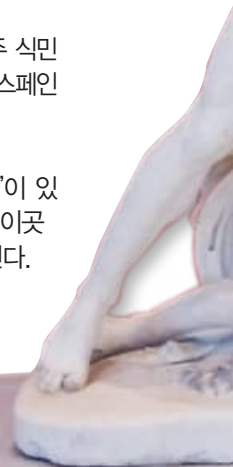
사건의 발단은 인솔자가 여자 동료에 대한 C의 태도를 지적한 데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정치적 입장 때문이었다. 인솔자는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정적인 것은 이승만에 대한 예찬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며, 국난극복의 해결사며, 독립운동의 선구자라는 찬사를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C는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이 미국에 의한 위임통치를 신청했다가 탄핵당한 사건이며, 전명운과 장인환 의사의 친일파 외교 고문 스티븐스 저격 사건 때 이승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체를 했다. 이때부터 둘 사이의 논쟁은 험악하게 전개되었다. C는 인솔자의 위선과 무지와 기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또 인솔자의 오만한 태도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게다가 그는 여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둥 어이없는 갑질의 행태까지 보였다. 이러자 성미 급한 C가 불을 뿜듯 소리를 지르고 ‘너, 이놈’, ‘저놈’하는 막말까지 내뿜었다. 인솔자도 휴대폰을 들이대며 녹음을 하여 증거로 삼겠다고 으박질렀다. C는 관광을 중단하고 귀국하겠다고 위협했다. 마침내 인솔자는 같은 방에서 자지 못하고 제 돈으로 호텔의 다른 방을 얻어 따로 잤다. 돈도 돈이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사태의 전모로 볼 때 인솔자가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C에게 연장자로서 아량을 베풀라고 타일렀다. 인솔자가 사과하면 아무 말 말고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또 분란이 커지면 둘 다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므로 더 이상 다투지 말도록 만류했다.

저녁 식사 때였다. 짐을 호텔 방에 풀고 식당으로 가는데 길을 지키고 있던 인솔자가 나를 막아섰다. 식사 전 이야기를 더 하자는 것이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오늘 밤에도 C와 같이 잘 수 없다고 했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나는 C를 만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핵심적인 문제의 발단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였다. 단체를 이끄는 사람은 그런 민감한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 모집해 온 여행객과 다투려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왕 터진 분란은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잘 극복함으로써 앞으로 관광객 인솔자로서 조직을 이끄는 데 한 차원 높은 슬기를 터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들어가 무조건 ‘형, 어제저녁에는 제가 소견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봅시다.’라던가, ‘여행 끝날 때까지 잘 모실 테니까 잘 봐주세요.’라던가 여하튼 요령껏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라”고 누누이 일렀다. 그는 나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다시 C를 만나 끝까지 타일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나도 그러마고 대답했다. 그러는 사이 일행은 모두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 우리 두 사람만 청승맞게 식사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배가 고파 이것저것 배를 채웠지만, 인솔자는 도무지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보기에 민망했다. 나는 C를 잘 타일렀으니 별일 없을 것이므로 너무 상심하지 말고 뭘 좀 먹고 가라고 쉼터며, 사과며, 빵이며, 먹을거리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울상만 짓고 있었다.

11월 27일(월) - ① 현지 여행 3일째다. 현지에서의 첫날밤은 그대로 잠을 잤다. 아마도 오랜 시간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톱아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어젯밤은 동료의 코골이 때문에 거의 잠을 설쳤다. 11시 취침하여 한밤중 2시에 잠을 깼다. 그 이후 4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의 침대 받침대를 두드려보기도 하고, 기침 소리를 내기도 하며 몇 가지 신호를 보내기도 하였지만, 코골이는 마찬가지로였다. 고민하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준 귀마개 생각이 났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잠을 청하려고 일어나니 그도 잠을 깼다. 평소 본인의 코골이를 알고 있는지 나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했다. 나는 즉시 손가방에서 귀마개를 꺼내어 귀를 막고 잠들었다. 약 2시간을 그렇게 잤다. 그나마 귀마개 덕분에 잘 수 있어 다행이었다.

아침 8시 사라고사를 떠나 마드리드로 향했다. 10시 30분에 중간에서 30분쯤 쉬고 12시에 마드리드에 도착. 스페인에서는 2시간 버스를 운행하면 반드시 15분 이상 쉬었다 가야 한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법적 조치다. 인구 316만으로 스페인 최대의 도시인 마드리드는 과거 합스부르크가의 전성기에 오대양을 누비고, 오대주 식민지에 깃발을 날리던 수도답게 웅장한 모습을 보여 준다. 파리나 로마의 건축물들과 비슷한 양상도 보인다. 스페인은 광장문화라고 하더니 무엇보다 광장이 넓다.

마드리드 관광은 프라도(Prado)미술관부터 시작된다. 미술관 옆 언덕에는 ‘산헤로니모스 엘 레알성당’이 있다. 16세기 고딕 양식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건물로 지금도 왕족들의 즉위식과 결혼식 등 의전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한다. 미술관 정문 거대한 석문(石門) 우측에는 ‘제르니모의 문’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마드리드 깃발

프라도는 스페인 말로 목초지를 뜻하며, 제르니모는 왕실의 텃밭이라는 뜻이다.

이 미술관 건립은 1785년 카를로스 3세가 건축가 후안 데 비아누에바에게 자연과학박물관의 설계를 의뢰한 것에

서 비롯되었다. 신고전주의 양식을 띤 이 건물의 건축은 나폴레옹전쟁 기간에 중단되었지만, 1819년 페르난도 7세 통치 때 완성되어 왕립회화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1868년 혁명으로 이사벨 2세가 추방된 뒤 국유화되어 프라도 국립미술관이 되었다.

가이드는 다년간 쌓은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미술관 전시물 해설에 열중했다. 이 미술관은 스페인 회화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미술의 걸작 등, 유럽의 다양한 회화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즉 5천여 점의 그림, 2천여 점의 판화, 1천여 점의 주화와 메달, 2천여 점의 장식물, 그리고 7백여 점의 조각상이 들어있다. 이들 소장품은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 왕가의 군주들이 수집한 미술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테면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의 작품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대가 호세 데 리베라와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루벤스, 렘브란트, 반 다이크, 푸생, 클로드 로랭, 앙투안 와토 등의 주요작품들과 그리스-로마풍의 조각품도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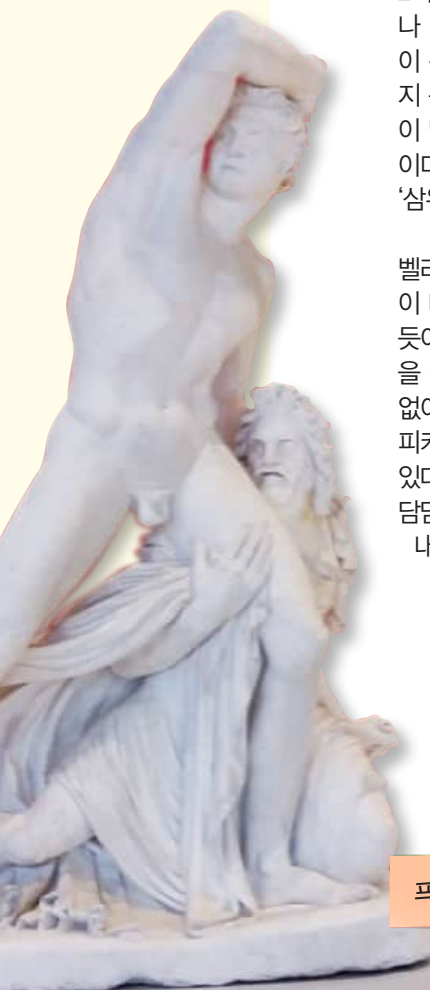
2시간 정도의 작품 해설 중 가장 역점을 둔 화가는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무리요 등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티치아노와 루벤스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낱알이 보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엘 그레코는 원래 그리스 출신의 화가로 스페인의 궁정화가를 열망했으나 되지 못하고, 옛 수도인 톨레도에서 일생 화업에 정진했다. 그래서 그의 대작들이 지금도 톨레도 성당에 많이 남아있다. 그의 미술의 특징은 그가 매너리즘의 화가임에도 강렬한 색상, 선명한 명암, 그리고 역동적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다. 본인은 독실한 기독교도로 성화를 주로 그렸는데, 여기서는 '삼위일체'와 '목동들의 경배' 등의 그림을 감상했다.

벨라스케스는 바로크미술의 대가로 많은 궁중 그림을 그렸다. 여기 있는 것은 '시녀들(펠리페 4세의 가족)'이 대표적이다. 프라도미술관을 방문한 모네가 이 그림을 보고 벨라스케스는 '화가 중의 화가'라고 극찬했듯이 이 그림은 마네, 모네 등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고야 등 수많은 화가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시인과 소설가들에게도 이야기거리를 제공했다. 피카소는 이 그림의 리메이크 작품을 수도 없이 그렸는데, 그런 그림을 바르셀로나 피카소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그림을 보러오는 피카소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마르가리타 공주는 가운데 있고, 양옆에 시녀들이 있다. 펠리페 4세와 왕비는 맨 뒤 거울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화가인 그는 그림의 왼쪽에 화필을 들고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다. 그는 바로크 화가임에도 장려함이나 감정표출이나 극적 효과나 생동감을 나타내는 바로크 화풍보다는 어두운 색조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곳에 많이 걸려있는 무리요의 그림 중에서는 '원로원의원의 꿈'과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를 인상 깊게 보았다. 그는 벨라스케스가 확립한 소위 세비야 유파라는 화풍을 이어받은 스페인 바로크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이다. 그의 주제는 흔히 신비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몸짓과 부드럽고 경건한 표정을 가진 전형적인 인간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사실성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그의 그림은 일방적으로 종교적 감정을 고양한 그림보다도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엘그레코 <삼위일체>



프라도미술관의 조각

피카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고야의 작품은 옛날 마구간으로 사용했던 지하층에서부터 2층까지 부지런히 이동하면서 감상했다. '마하 부인(옷 벗은 마하)'과 종교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그렸다는 '옷 입은 마하'를 보았다. '옷 벗은 마하', 예술과 외설이라는 케케묵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이 그림 때문에 당시 궁정화가로서 직위마저 박탈당했다. 그 뒤 고야는 이 작품 속 누드모델에게 그대로 옷을 입힌 작품을 내놓지만,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받는다. '옷 입은 마하'를 보면서 '옷 벗은 마하'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경직된 스페인 사회에 대한 고야 특유의 향의 표시라고 할까? 그 밖에도 '사투르누스', '카를로스 4세 가족',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 '양산' 등의 그림을 감상했다. 정치적 변화에 민감했던 그에게 왕정복고와 공화정의 몰락, 뒤이은 실정과 사회적 혼란은 그의 그림의 주요주제가 되었다.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이 그 시기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스페인 내전 때 왕당파를 지원했던 독일 나치의 폭격으로 게르니카 마을이 처절하게 불탔을 때, 그 전쟁의 참상과 만행을 폭로한 작품이 피카소의 <게르니카>이다. 그 작품으로 그는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데, 고야의 '마드리드 1808년 5월 2일'과 '마드리드 5월 3일'이 바로 이 최고의 걸작 <게르니카>의 원형이다. 후일 피카소는 <게르니카>가 위의 두 작품과 함께 전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술관을 나오면서 화집에서만 보았던 루벤스의 '삼미신(三美神)'이나 티치아노의 '황금비를 맞는 다니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모두 볼 수는 없었다. 미술관을 나오면서 보니 정문 앞 광장에는 벨라스케스의 동상이, 미술관 남쪽에는 무리요의 동상이, 그리고 미술관 입구에는 고야 동상이 서 있다. 가이드가 그들에게 역점을 두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호상 114호에 계속 연재

사 진 출 처

- 라 페드레라 전사 옥상 스페인 관광청
- 밀라저택 라페드레라-카사밀라닷컴
- 구엘공원 구엘공원 홈페이지, 스페인 관광청, 비지터바르셀로나닷컴
- 구엘공원 포르티코 돌기둥, 바르셀로나 성가족대성당, 스테인드 그라스 허창무 교우 제공
- 사라고사 필라르 대성당 스페인 관광청, 허창무 교우 제공
- 프라도 미술관의 조각 허창무 교우 제공



벨라스케스 <시녀들>



고야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



피카소 <게르니카>

어느 할머니의 따뜻한 人情

김 진 하
상66·시인

날씨가 화창한 토요일이다.

아침 10시경 아내와 함께 현충원 안을 들어가서 걷다가 다시 나와서 바깥 오솔길 산책을 한다.

한참을 걷는데 달마사 가까운 길에서 노숙자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겨우겨우 걸음을 걷고 있는데 내가 이 길에서 가끔 보는 할머니로서 어떤 때는 원두막 같은 곳에 드러누워 있기도 하는 그 할머니 같다. 그런데 옆을 지나치는데 이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예사로 지나가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다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한다. “여보, 이 할머니가 전화를 좀 걸어달라고 하는 모양이에요.”한다. 할머니가 어둔한 말로 우리 영감한테 “전화 좀 해 줘요.”하면서 전화번호를 띄엄띄엄 말한다. 전화를 하니 바로 받는다. 전화를 할머니 입에 갖다 대니 “놀이터로 와요.”한다.

놀이터가 가깝고 또한 계단이 제법 많아서 아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걷다가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내가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떼어서 내려가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영감님이 나타나는데 연방 꾸벅꾸벅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온다. 아까 할머니한테 “연세가 얼마예요?”하니 “70이야.” 한다. “아이구 아직 얼마 되지 않으셨네.” 했는데 영감님도 보니 나보다도 젊은 것 같다. 영감님 말씀에 의하면 할머니가 2년 전부터 파킨슨병에 걸려 제대로 걷기가 힘들다고. 할아버지도 인상이 참 좋고 할머니도 성격이 매우 활달하신 것 같다.

말씀 도중에 할머니가 나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한다. “할머니 뭐 하시게요?” 하니 “우리가 파주에 밤나무 밭이 있어 집에 밤이 좀 있어요. 아까 지나가는데 전화부탁을 하면 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면서 “오늘 너무 고마워서 언제 시간이 나면 우리 집에 가서 밤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 행려병자처럼 느껴져 주저주저 했는데 정신은 정상이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샘솟는 인정(人情)이다.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속에 뭔가 뭉클한 것이 솟아오르며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 마음만 해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속아 사는 삶

황 인 강
상61·수필가



삶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 지내면서 산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허둥지둥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인생이란 간단하지 않아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자주 암송한다. 왜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했을까.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는 「푸시킨」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를 수십 번은 읽었을 것이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읽지를 않아서인지, 그저 위로가 되는 시라고 여기며 암송을 한다. 속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맞선을 볼 때 상대방을 완전히 알고 결정짓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상대방에 대해 안다면 또 얼마나 아는가. 쉽게 판단하여 성사된 남녀의 결혼생활이 깨지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의 생각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착각이 아닐까. 사람이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속는다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속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만 어디까지가 속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차라리 속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다.

오늘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좋은 시 정도로 여기며 지내왔다. 어떻게 인생을 짧은

말로 응축할 수 있을까.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했다. 성경에서도 다윗 왕이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든 순간이 오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에 ‘이 또한 지나가느니라.’라는 글을 반지에 새겨 넣고 자신을 위로한 왕의 지혜가 눈부시다는 생각에 미치면 큰 의미가 있지 싶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보면 역시 위대한 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오늘의 우리가 속고 사는 과정이 그때의 시대상과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속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속으며 사는 것이 인생사의 공통된 과정인가. 속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만 속임을 당할 때 아무런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푸시킨>은 우리의 삶이 속임을 당한다고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뒤에 반드시 기쁨의 날들이 온다고 믿으란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들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모든 것은 순간적이라고 했다, 우리 인생의 고통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은 순간적’이라는 표현에 위로를 받고 산다. 어찌 세상의 모든 것이 순간적이라 표현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곧 지나가 버린다고 쉽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 시대를 바라보는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위로를 주는 이 시가 누군가에게는 명시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리라 상상해본다.

한국-터키 20억 달러 통화스와프의 함의

이 경 순

상61·수필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정책연구자문위원 겸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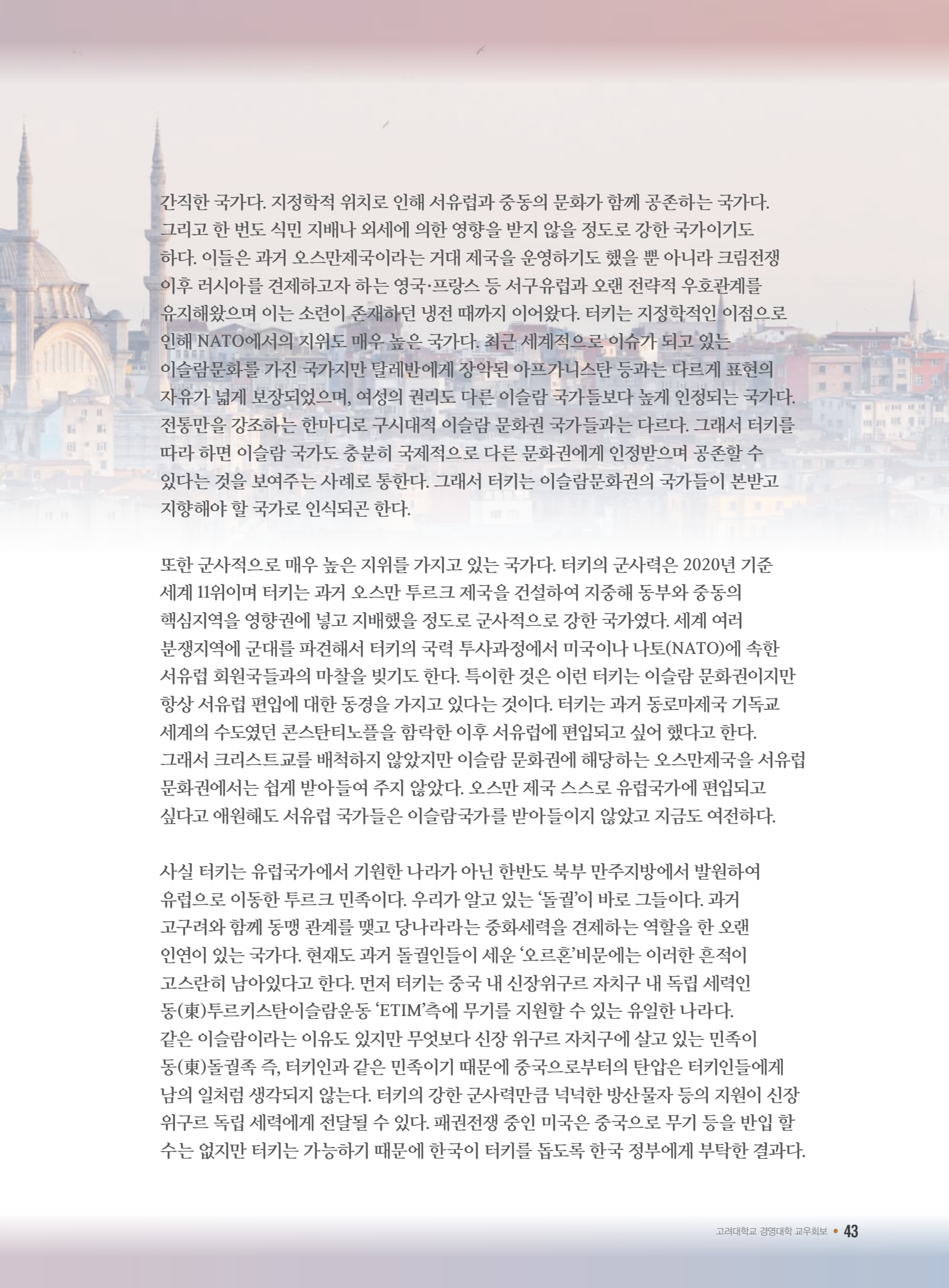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12일 터키중앙은행과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두 중앙은행 총재가 이날 서명한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계약금액은 20억 달러(2조3000억 원·175억 리라 규모)로 계약기간은 3년이며 만기가 도래하면 두 중앙은행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터키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탄탄하지 못하다. 지난해 373억 달러 경상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해 1분기에도 78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이어갔다. 그만큼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도 지난 2019년 말 1,057억 달러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976억 9200만 달러로 줄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외환 안전판'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며 통상 기축통화국과 그에 준하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국가들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 불안이 끊이지 않고 통화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터키와의 통화스와프의 체결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선진국과는 위기대비 목적으로, 신흥국과는 경제·금융협력 증진 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는 설명엔 한국이 준(準)기축통화국이며 6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우방 미국이 있다는 말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600억 달러), 캐나다(사전 한도 없음), 스위스(106억 달러), 중국(590억 달러), 호주(81억 달러), 말레이시아(47억 달러),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54억 달러) 등 8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국가들과는 384억 달러 규모로 다자간 통화스와프도 체결한 상황이다.

터키는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국가이자 특이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국가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서유럽과 중동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국가다. 그리고 한 번도 식민 지배나 외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강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들은 과거 오스만제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운영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크림전쟁 이후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영국·프랑스 등 서구유럽과 오랜 전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소련이 존재하던 냉전 때까지 이어왔다. 터키는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인해 NATO에서의 지위도 매우 높은 국가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문화를 가진 국가지만 탈레반에게 장악된 아프가니스탄 등과는 다르게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었으며, 여성의 권리도 다른 이슬람 국가들보다 높게 인정되는 국가다. 전통만을 강조하는 한마디로 구시대적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터키를 따라 하면 이슬람 국가도 충분히 국제적으로 다른 문화권에게 인정받으며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통한다. 그래서 터키는 이슬람문화권의 국가들이 본받고 지향해야 할 국가로 인식되곤 한다.

또한 군사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터키의 군사력은 2020년 기준 세계 11위이며 터키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하여 지중해 동부와 중동의 핵심지역을 영향권에 넣고 지배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였다.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해서 터키의 국력 투사과정에서 미국이나 나토(NATO)에 속한 서유럽 회원국들과의 마찰을 빚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이런 터키는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항상 서유럽 편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는 과거 동로마제국 기독교 세계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이후 서유럽에 편입되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배척하지 않았지만 이슬람 문화권에 해당하는 오스만제국을 서유럽 문화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오스만 제국 스스로 유럽국가에 편입되고 싶다고 애원해도 서유럽 국가들은 이슬람국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사실 터키는 유럽국가에서 기원한 나라가 아닌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서 발원하여 유럽으로 이동한 투르크 민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궐’이 바로 그들이다. 과거 고구려와 함께 동맹 관계를 맺고 당나라라는 중화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오랜 인연이 있는 국가다. 현재도 과거 돌궐인들이 세운 ‘오르혼’비문에는 이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한다. 먼저 터키는 중국 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독립 세력인 동(東)투르크스탄이슬람운동 ‘ETIM’측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같은 이슬람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살고 있는 민족이 동(東)돌궐족 즉, 터키인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탄압은 터키인들에게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터키의 강한 군사력만큼 넉넉한 방산물자 등의 지원이 신장 위구르 독립 세력에게 전달될 수 있다. 패권전쟁 중인 미국은 중국으로 무기 등을 반입 할 수는 없지만 터키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 터키를 돕도록 한국 정부에게 부탁한 결과다.

이러한 국제적 입지와 독특한 문화를 가진 터키는 한국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터키 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국 드라마가 널리 보급되고 젊은 층들에게 K팝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장 현수교로 기록을 세우고 있는 터키 ‘차나칼레 대교’상관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니 조만간 멋진 세계적인 교량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거대 현수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한국 건설사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터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터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것이다. 자칫 외환위기로 같은 유럽에 있는 그리스와 같은 경제도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터키와의 그동안 맺은 관계를 소중히 생각한 부분이 컸다. 그리고 과거 한국이 겪은 뼈저린 경험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줬다. 1997년 한국에도 외환위기가 있었다. 바로 IMF 경제 위기였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대량의 자금을 회수한 국가가 바로 옆 나라 일본이기도 하다. 당시 한국의 절박한 사정은 일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미중패권 전쟁 중에 미국의 협조로 체결된 ‘한국-터키 통화스와프’의 간접적인 효과 덕분에 이슬람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우리교민과 협력자 391명이 성공리에 철수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런 한국의 도움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된다. 터키의 각종 초대형 토목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방위 산업 분야에서 더욱 높은 지분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카프카스 3개국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터키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신흥국들과의 토목사업을 진행하며 경제 확대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 중동,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거대 토목사업이 많이 필요한 나라인데 터키를 통해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이다. 또한 터키 주변으로는 이스라엘 운하, 카스피해(海) 횡단대교 등 다양한 토목사업 진출 기회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터키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동과 유럽 진출의 거점이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토면적이 작아 토목사업의 기회가 적은 한국으로서는 터키와 카프카스 지역이 제2의 내수 시장과 같은 지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기업이 터키에서 건설 중인 ‘차나칼레’대교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매우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다. 터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터키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고생했었는데 한국에서 안타까워하며 다량의 묘목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과거 당나라를 함께 공격한 고구려와 돌궐의 후예들이 이제 미중패권 전쟁 중에 중국에 맞서 머나먼 곳에서 서로를 돕고 있는 상황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자 유 · 정 의 · 진 리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120년 전통의 아시아 리딩 경영대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배종석)은 대학 설립 120주년을 앞두고 [30-30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30-30 Project란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라는 경영대학의 미션에 따라 2030년까지 글로벌 30위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이다. 배종석 학장을 만나 30-30 Project에 대하여 자세히 들어보았다.

‘보이지 않는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한 소프트파워를 키우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차이를 만들어 내고 효과를 가져올 실재적인 것(the real)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력 강화를 위해 세계 유수 대학에 재직중인 스타교수를 초빙하는 것, 세계적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교육과정을 혁신하여 비판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는 것, 역사성과 예술성에 기반한 사회적 상상력을 높이는 것, 경영대학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등 **모두 잘 보이지 않**

지만 새로운 건축 과정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고 연구문화를 바꾸겠습니다

현재 경영대학에는 85명의 교수들이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 좋은 교수 초빙을 위해 힘써 왔고, 출신대학을 고려하지 않고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역량이 지속되어 계속 연구 성과물이 나오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교수급 젊은 교수들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대학의 스타급 교수들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연봉이 알려진 미국의 주립대학교의 경영대학에 재직 중인 200명이 넘는 스타급 교수들의 업적과 연봉을 조사하였습니다. 한 명의 교수를 초빙하는데 약 7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최소 10여 명의 스타급 외국인 석좌교수를 초빙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력 강화를 위해 ESG,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업가 정신과 혁신 등을 포함한 연구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연구소가 될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30-30 Project

10년간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Creating Knowledge and Developing Leaders
Who Change the World*

인격과 실력을 갖춘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여
인류가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도록 기여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꿈과 사명입니다.



배종석 학장과의 인터뷰

경영대학의 [30-30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2030년까지 글로벌 30위 경영대학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에 경영대학은 '사회에 기여하는 경영을 위해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는 미션을 세우고, 경영분야의 세계적 지식 허브가 된다는 비전 하에 2030년까지 아시아 1위, 글로벌 30위가 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미션과 비전을 잘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 [30-30 프로젝트]를 해야만 할까요?

지난 20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경영대학으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다른 대학들과 겨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랭킹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키워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출하여 기업과 사회의 각 영역을 발전시켜 인류가 함께 좋은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대학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30-30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연구역량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우수 대학의 **스타급 석학교수**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ESG,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창업 등 최근의 주요 주제를 포함한 경영의 탁월한 연구를 위한 세계적인 연구소를 세우고자 합니다. 둘째, **인재양성**입니다. **인격과 실력을 갖춘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특유의 문화와 경영학의 기본지식에 더하여 전환기에 새로운 주도성을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해 투자하고자 합니다. 셋째, **역사성과 예술성 함양**입니다. 116년 역사의 경영학 교육의 역사성을 알릴 서적과 원로교수님들의 구술사(口述史) 동영상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영대 건물 안팎에 예술품을 설치하여 경영대학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성과 야성 위에 감성을 더하여 예술적 및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현재 향후 10년간의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약 4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연구와 인재양성, 역사/예술분야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첫 2년간의 예산은 약 18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우님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경영대학이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영대학은 이 정도의 발전에 만족하며 지낼지 아니면 새로운 꿈을 꿀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싶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갖춘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겠습니다

경영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매우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돕는 일은 대학이 감당할 임무입니다. 취업 후에 그저 남 밑에서 4~5년 일 잘 할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인재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 삶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알고 그런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혁신을 이뤄낼 인재, 문제의 본질을 정확

히 파악하고 우리 사회의 미해결된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할 그런 인재, 경영학 지식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유·정의·진리의 정신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인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사회적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일 것입니다.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이전에는 장학금을 제공하여 공부할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교육방법적으로는 토론과 현장밀착 교육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접근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영대학은 현재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 경영],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라는 세 개의 세부트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점을 이수하면 세부트랙을 전공한 것을 확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세 분야에 대해 매년 학생들의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팀에 대해 창업지원금을 주고, 외국의 글로벌 경진대회에 파견하는 등 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정된 장학금과는 다른 형태의 교육을 통한 장학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역사성과 예술성을 통해 지성과 야성에 감성을 더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 경영대학이 116년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역사적 조망을 하는 전문서적을 역사학자에게 저술하게 하여 120주년이 되는 2025년에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오얏나무, 회화나무, 잣나무를 경영관 앞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오얏나무는 대한제국의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보성전문학교의 상징이었습니다. 회화나무는 1906년 교사로 사용된 현조계사에 있는 나무로 일명 학자나무입니다. 잣나무는 공식적인 고려대 교목입니다. 이들 수목을 조성하여 고려대 역사와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경영관 건물 안팎에 훌륭한 예술품을 설치하여 **경영대학의 격**을 한층 높이하고자 합니다. 고려대 및 경영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고려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런 [30-30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교수님들의 많은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영대학은 교수님들께서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가지시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120년 전통의 아시아 리딩 경영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년 연속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배출 1위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대학별 최종합격자 누적 현황

순위	대학명	계 인원	2021 인원	2020 인원	2019 인원	2018 인원	2017 인원
1	고려대	599	152	127	109	114	97
2	연세대	476	118	106	88	86	78
3	성균관대	434	102	98	84	72	78
4	중앙대	418	104	103	73	68	70
5	경희대	366	76	85	72	60	73
6	서울대	307	91	56	52	65	43
7	서강대	289	66	58	74	54	37
8	한양대	265	53	49	60	38	65
9	서울시립대	191	41	44	34	32	40
10	이화여대	162	40	33	26	25	38
상위 10개 대학 계		3507	843	759	672	614	619
전 체		5110	1172	1110	1009	904	915

2021년 공인회계사시험(CPA) 대학별 합격 현황

순위	대학명	2021년
1	고려대	152
2	연세대	118
3	중앙대	104
4	성균관대	102
5	서울대	91
6	경희대	76
7	서강대	66
8	한양대	53
9	서울시립대	41
10	이화여대	40

대학교육 전문매체 '한국대학신문'은 최근 기사를 통해 올해 실시된 2021년 CPA(공인회계사)시험에서 고려대가 2위(연세대)와의 차이를 한층 늘리며 6년 연속 CPA 배출 왕좌를 수성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26일~27일 실시된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대학은 고려대로 확인됐다. 총 15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고려대는 2016년부터 CPA 합격자 배출 1위 자리를 6년간 단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진기록을 세웠다.

고려대는 지난 해 127명에서 올해 152명으로 무려 25명의 합격자가 증가하였다. 합격자 규모는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118명), 중앙대(104명), 성균관대(102명), 서울대(91명) 순으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한국대학신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실

시된 CPA 시험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대학의 누적 현황을 비교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 결과에서도 역시 고려대는 5년간 총 599명을 배출하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공인회계사시험에서 고려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학교 측의 적극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공인회계사 준비반인 '정진초(精進礎)'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공인회계사시험 공부를 전폭적으로 돕고 있는데, 정진초에서는 회계학 강의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선배들과의 만남 행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도 이용 가능한 이 제도들은 특히 회계법인 선배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고려대만의 고유하고 탄탄한 네트워크가 6년 연속 CPA 최다 배출의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www.korea.ac.kr



고려대 옥용식·이재혁 교수, 기업의 향후 ESG 평가 체계의 변화 방향 제시해

고려대 교수
옥용식·이재혁(무역84)



고려대학교(총장=정진택) 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와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무역84)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레피티브(Refinitive, 구 톰슨로이터), 블룸버그(Bloomberg) 등 대표적 ESG 평가기관의 환경(E) 필라에 대한 평가 카테고리 및 주제 등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ESG 평가 체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8월 23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E) 필라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학술지, '지속가능 환경(Sustainable Environment)'에 온라인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20년 OECD에서 발간한 ESG 투자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분석,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ESG 환경(E) 필라에 대한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글로벌 평가기관별로 상이하며, 특정 평가기관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높은 기업의 환경 점수가 높게 평가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 개별 지표의 한계점

을 지적하였다. (그림1_그래프)

ESG 환경(E) 필라의 경우 MSCI는 기후변화, 자연자본, 환경오염 및 폐기물 등을 주요 카테고리로 탄소발생, 생물다양성 등 13개의 주제를 기준으로 삼았고, S&P의 경우 재활용정책,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21개의 기준, 레피티브는 자원사용, 배출, 제품혁신의 3개 카테고리에서 연구개발, 제품혁신 등 11개의 주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그 기준과 평가방법이 기관별로 상이함을 분석하고 ESG 점수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같은 환경 이슈는 특정기업 또는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이슈로 판단하였다.

특히, 환경(E) 필라에서 생물다양성 이슈의 경우 올해 6월 세계환경의 날과 함께 공식 출범한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자연

대표적 ESG 평가기관의 환경(E) 필라에 대한

평가 카테고리 및 주제 등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ESG 평가 체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를 통해 향후 2년 이내 기업이 자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기 위한 보고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자연자본, 특히 토양환경에 대해서 관련 경험 혹은 역량을 갖춘 이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저명 학자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TNFD를 포함한 최신 이니셔티브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을 연구진은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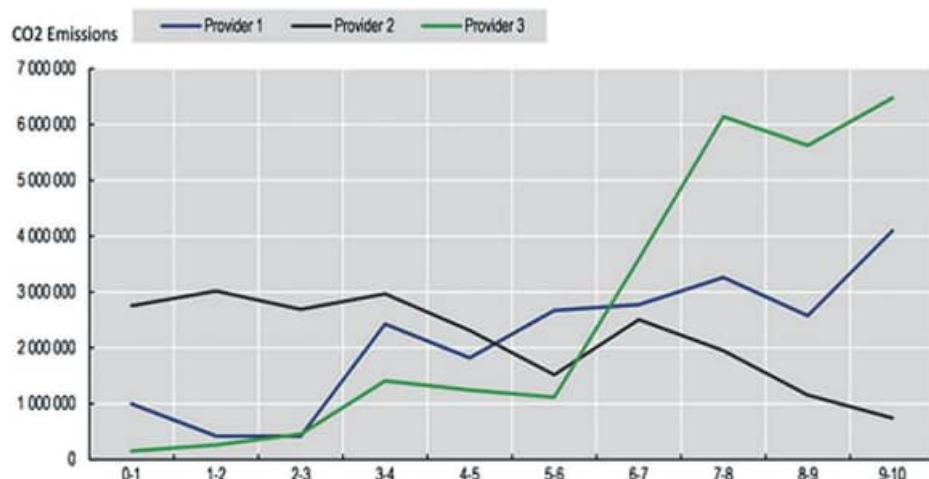
본 연구를 공동으로 주도한 고려대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는 ESG 인재 영입, ESG 위원회 신설 과정에서 이사회에 환경 관련 전문성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가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한편 옥용식 교수는 세계 최대 출판사인 테일러앤프랜시스(Taylor & Francis)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에서 환경(E) 필라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학술지, “지속가능 환경 (Sustainable Environment)”을 창간하고 초대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한국인 최초로 환경생태 분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바 있다.

이재혁 교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 ESG 협회 공동협회장과 고려대학교 ESG 위원회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및 평가(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경영전략 및 글로벌전략을 포함한 여러 관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및 저술 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www.korea.ac.kr

그림1_그래프



톱100, 국내 대학 6개 중 4개 순위 하락 2021, QS 세계대학평가

서울대 36위, 카이스트 41위... 세계 톱100 대학에 한국 6개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6월 9일 새벽 발표한 올해 '세계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 39곳 가운데 23곳(59%) 순위가 지난해보다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구 역량을 평가한 논문 피인용 지표에서는 25곳(64%)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QS는 "한국 대학들 순위가 내려간 주요 원인은 연구 성과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각종 규제에 재정난까지 누적돼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톱 100 한국 대학 6곳 중 4곳 순위 하락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대학 6,415곳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00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연구·교육·졸업생·국제화 등 4분야를 ①학계 평가(40%) ②논문 피(被)인용 수(20%) ③교수 1인당 학생 수(20%) ④졸업생 평판도(10%) ⑤외국인 교수 비율(5%) ⑥외국인 학생 비율(5%) 등 지표 6개로 평가했다. 4년제 대학 195곳(교육부 공시 기준) 가운데 39곳이 QS 세계대학평가 순위 안에 들었다. 100위 안에 든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36위)·카이스트(41위)·고려대(74위)·연세대(79위)·포스텍(81위)·성균관대(97위)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랐고, 연세대는 6계단 뛰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카이스트를 포함해 대학 4곳은 지난해보다 2~9계단 내려앉았다. 100위 밖의 한국 대학 33곳 가운데 18곳은 순위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한국 대학들의 평균 점수를 6개 지표별로 살펴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만 국제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 지표 5개는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배점이 높은 학계 평가에서 국내 대학 평균은 40.31점으로 국제 평균(44.12점)보다 낮았고, 대학의 연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논문 피인용 수도 평균 35.58점으로 글로벌 평균(37.99점)에 미달했다.

“뒤쳐진 경쟁력 만회 쉽지 않아”

세계 대학 순위는 해외 우수 교원과 학생들을 유치하고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데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 약화가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끼쳐 순위 하락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QS 평가에서 연구 영향력을 나타내는 논문 피인용 수 지표에서 작년보다 점수가 오른 국내 대학은 3곳에 불과하다. 이 지표에서 10위 안에 든 광주과학기술원(4위)과 울산과학기술원(9위)도 있지만 대다수(26개) 한국 대학은 600위 밖이다. 김우택 연세대 부총장은 “졸업생 평판도 등에 집중해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에 이른 것”이라며 “결국 연구 역량이 대학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했다.

13년째 동결된 등록금을 비롯해 정부 규제로 재정난이 심화해 대학 경쟁력이 추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인성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재정이 해마다 쪼그라들어 교육, 연구에 투자하지 못하고 기존 교원 인건비마저 줄여가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며 “약화된 국제 경쟁력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QS 순위

QS 세계대학평가 한국 대학 순위

대학명	2021년	2020년
서울대	36위	37위
카이스트	41	39
고려대	74	69
연세대	79	85
포스텍	81	77
성균관대	97	88
한양대	156	146
울산과학기술원(UNIST)	212	
경희대	264	236
광주과학기술원(GIST)	305	295
이화여대	362	333
중앙대	414	403
한국외대	445	392
가톨릭대	482	456
동국대	494	456
서강대	494	490
아주대	531-540	551-560
경북대	541-550	561-570
울산대	541-550	521-530
한림대	561-570	551-560
인하대	561-570	531-540
전북대	571-580	591-600
건국대	601-650	551-560
부산대	601-650	581-590
세종대	601-650	651-700
전남대	751-800	701-750
충남대	751-800	751-800
단국대	751-800	751-800
서울시립대	801-1000	751-800
영남대	801-1000	801-1000
충북대	1001-1200	
제주대	1001-1200	
강원대	1001-1200	
국민대	1001-1200	
부경대	1001-1200	
서울과학기술대	1001-1200	1001+
숙명여대	1001-1200	
영산대	1001-1200	
홍익대	1201+	

2021년 QS 세계대학평가 순위

1 MIT(미)	26 토론토대(캐)
2 옥스퍼드대(영)	맥길대(캐)
3 스탠퍼드대(미)	27 호주국립대(호)
4 케임브리지대(영)	맨체스터대(영)
5 하버드대(미)	30 노스웨스턴대(미)
6 캘리포니아공대(미)	31 푸단대(중)
7 임페리얼칼리지(영)	32 UC버클리(미)
8 ETH 취리히(스)	33 교토대(일)
9 UCL(영)	34 홍콩과학기술대(홍)
10 시카고대(미)	35 킹스칼리지런던(영)
11 싱가포르국립대(싱)	36 서울대(한)
12 난양공대(싱)	37 멜버른대(호)
13 맨체스터대(영)	38 시드니대(호)
14 로잔연방공대(스)	39 홍콩중문대(홍)
15 예일대(미)	40 UCLA(미)
16 에든버러대(영)	41 카이스트(한)
17 칭화대(중)	42 뉴욕대(미)
18 베이징대(중)	43 뉴사우스웨일스대(호)
19 컬럼비아대(미)	44 PSL(프)
20 프린스턴대(미)	45 저장대(중)
21 코넬대(미)	46 브리티시컬럼비아대(캐)
22 홍콩대(홍)	47 퀸즐랜드대(호)
23 도쿄대(일)	48 UC 샌디에이고(미)
24 미시간대(미)	49 런던정경대(영)
25 존스홉킨스대(미)	50 상하이교통대(중)
	뮌헨공대(독)

※전체 순위는 www.topuniversities.com에서 볼 수 있음. (한=한국, 미=미국, 영=영국, 스=스위스, 싱=싱가포르, 일=일본, 중=중국, 캐=캐나다, 호=호주, 홍=홍콩, 독=독일, 프=프랑스)



톱 30위에 아시아 6개대... 한국은 18번째 0

2003년 QS 세계대학평가가 시작된 이후 올해로 18년째 한국 대학은 톱 3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역대 최고 순위는 2014년 31위(서울대)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톱10 진입을 눈앞에 둔 싱가포르 국립대(11위)와 난양공대(12위)를, 중국은 칭화대(17위)와 베이징대(18위)를 30위 안에 올렸다. 일본은 도쿄대(23위)가 톱 30위에 들었다. MIT(매사추세츠공대)가 10년 연속 1위를 지켰고, 옥스퍼드대는 2위에 올랐다. 스탠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공동 3위로 집계됐다. 김보원 카이스트 부총장은 “초일류 대학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평가받는 시대에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9위 경제 규모의 한국이 30위 내 대학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www.korea.ac.kr

모교 여자 재학생 비율 비약적 증가...올 1학기 46.1%



1980년대에 비해 5배 증가
여자 졸업생 평균 비율은 57%

2021년 단과대학별 여자 재학생 비율

2021년 재학생 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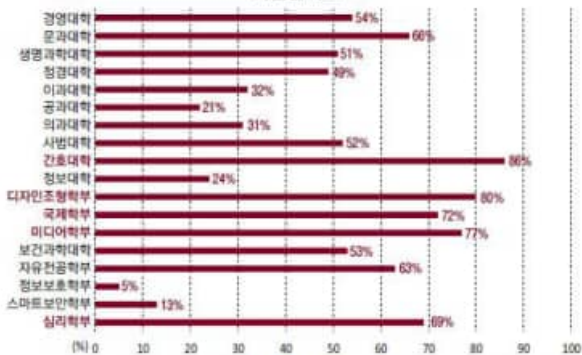


1만 227명(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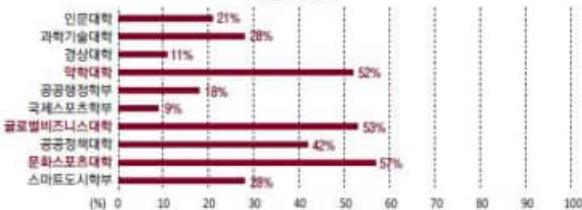


1만 436명(53.9%)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2021년도 1학기 현재 서울캠퍼스 여자 재학생의 비율은 43.1%, 세종캠퍼스는 31.5%에 이르러 평균 40.2%다.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들만 고려한다면 비율은 더욱 상승한다(서울 48.8%, 세종 37.9%, 평균 46.1%). 1980년 기준 여학생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던 점을 고려할 때, 40년 만에 약 5배가 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간호대, 디자인조형, 미디어 순으로 높아

왼쪽 그래프에서는 올해(2021년도 1학기 기준) 단과대학별 여학생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여학생의 비율이 절반을 초과한 단과대학은 서울캠퍼스는 18개 중 11개, 세종캠퍼스는 10개 중 3개나 된다.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간호대(86%), 디자인조형학부(80%), 미디어학부(77%), 국제학부(72%), 심리학부(69%) 순서다. 물론 여학생의 비율이 저조한 학과도 있다. 2012년에 신설된 정보보호학부는 사이버보안 전문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 여학생의 비율이 5%에 그친다. 1989년 사회체육학과로 문을 열고, 국제적인 스포츠 인재를 키우고자 2014년에 재개편된 국제스포츠학부의 여학생 비율은 9%다. 그러나 이 두 단과대학을 제외 하고는 모두 두 자리 수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주를 이루던 단과대학에서도 성비가 변화 중이다. 공과대학은 21%, 이과대는 32%로 4년 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도 약 8%p 상승했다. 올해 서울캠퍼스 스마트보안학부는 신설됨과 동시에 사이버 국방학과와 통합돼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개편됐다. 따라서 현재 17개 단과대학 체제다. 또 세종캠퍼스는 2017년 대대적인 학제개편을 진행해 5개 단과대학으로 변경 후, 2021년 신설된 스마트도시학부까지 총 6개 단과대학 체제다. 그러나 그래프에 개편 이전 단과대학을 표기한 이유는 기존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기 때문이다.

여성 교수 수 가파른 증가세

1967년 여자교우회 전신인 '석란회'가 출범했다. 그 해 여자 졸업생은 51명이었다. 10년 후인 1977년도에는 294명으로 약 6배가 증가했다. 43년이 흐른 2020년 여자 졸업생은 1,321명으로 비율은 57%이다. 이는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여자교우회 창립 50주년이었던 2017년 기준 여자 교수 수가 6만 명 이상이었다. 4년이 지난 2021년, 여성 교수 10만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매우 눈에 띄는 증가다. 여성 교수들의 힘찬 도약이 기대된다.

8월자 모교 교우회보 발췌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 오픈하며 강남시대 개막

고려대학교 개교 116년 만에 첫 강남 진출
미래의학과 사회공헌 실현하는 전초기지 될 터

고려대의료원이 고영캠퍼스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강남시대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은 10월 7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영캠퍼스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보직자 등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는 고려대학교 116년 역사상 첫 강남 진출로 그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상 10층, 지하 5층에 연면적 1,405평의 위용을 자랑하는 고영캠퍼스는 맞춤형 특화진료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헬스케어 모델 창조, 융복합 연구, 사회공헌사업 등 미래의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과 탐구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려대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올해 3월부터 산하 안암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영상검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바로 고영캠퍼스 의료영상센터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돕는 임상연구지원본부도 들

어선다. 임상연구지원본부는 고려대의료원이 지난 2019년 9월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세계 최초로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14155)을 획득하면서 만든 조직이다. 유럽 시장 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반드시 강화된 의료기기규정(MDR)에 따라 ISO14155 규격에 맞는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려대의료원이 인증을 받으면서 국내 임상시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고영캠퍼스는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홈헬스케어 분야 연구기지의 역할도 담당한다. 한국형 홈헬스케어 개발 연구를 통한 고령사회의 사회적 문제인 돌봄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제도로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의료원장 직속의 사회공헌사업본부가 입주한다는 점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실현을 강조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 왔다. 사회공헌사업본부는 앞으로 의료봉사, 국제보건사업, 통일보건의료사업, 국가재난대응 등 기존에 해오던 고려대의료원의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10월 13일자 모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발췌

2007년 이영인 여사는 의학발전을 염원하신 모친의 유지를 받들어 청담동 부지를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기부했다. 고려대의료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미래의학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초기지로 고영캠퍼스를 구축했으며 2021년 10월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고려대학교는 기부자의 어머니 성과 기부자의 이름을 합쳐 '고영캠퍼스'라 명명하였다.

자산시장 거품의 붕괴위험

경영대 명예교수·16대 총장
이 필 상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가격거품

자산시장의 붕괴우려가 크다. 경제성장을 하락과 실물경기 침체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나 거꾸로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거품에 들떠 있다.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 경제가 부도위험에 처해 가게와 기업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재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이 평균 93% 올랐다. 주시가격도 빠른 속도로 올라 정부출범 당시 2270선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7월 3280선을 돌파해 무려 4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2%를 기점으로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등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주식시장의 경우 거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버핏지수(Buffett Indicator)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거품이 낀 것으로 본다. 최근 한국주식시장의 버핏지수는 110%에 달한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거품은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규모로 자금을 풀자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6번에 걸쳐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추가 매수는 위험하다는 경고까지 했으나 부동산 가격상승은 막무가내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거품을 키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로 큰 문제가 가계부채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가 1,805조9천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1년동안 168조6천억 원 늘어 증가액이 사상 최대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60%에 이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경제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



선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 유동성이 과도한 상태에서 코로나19의 델타 변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자 물가불안과 경기침체가 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 가계부채의 연쇄부도가 나타나고 부동산시장 거품이 빠른 속도로 꺼질 수 있다. 증권시장도 직격탄을 맞는다. 부동산과 증권시장 거품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통화긴축정책(tapering)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0.00~0.25% 수준으로 낮추고 동시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풀었다. 미국은 오는 연말부터 양적완화를 줄이고 내년부터는 기준금리도 올릴 전망이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금리인상의 첫발을 뗐다고 말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금융위원회도 집값을 잡겠다고 인위적인 대출축소에 나섰다. 금융회사에 가계대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정부가 권고한 연간 가계대출증가율 상한선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거나 연간 목표치 안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감소하지 않으면 한도축소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중의 부동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고 주택의 매입열풍이 강해 대출억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싸움에서 저 오히려 정책을 펼 때마다 가격상승의 단계가 높아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정책도 유사한 현상을 낳아 자칫하면 자산시장

거품의 붕괴를 재촉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제불안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 주도의 플라자 협약(Plaza Agreement)에 따라 엔화의 절상이 본격화되어 수출산업이 위축되자 구조개혁 대신 내수부양을 택해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저금리로 풀린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흐르는 대신 부동산 시장으로 향했다. 일본은 부동산 시장 거품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2.5%에서 6%로 인상했다. 곧바로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고 금융시장이 위기에 휩싸이며 일본경제는 장기침체의 길에 들어섰다. 기준금리 인상이 일본경제를 무너뜨린 기폭제로 작용했다.

G2발 국제금융위기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최대 민간 부동산개발 회사인 헝다그룹이 부도위기를 맞아 일파만파다. 중국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 사회기반 건설과 부동산 개발정책을 집중적으로 폈다. 자연히 부동산 시장이 거품으로 들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자금을 대규모로 푸는 팽창정책을 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더욱 커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기집권의 통치이념으로 공동부유를 선언하고 기업들을 규제하고 부의 사회환원을 꾀하는 정책을 표방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서민생존을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한다고 밝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정부가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해 대출규제정책을 펴기 시작하자 357조 원에 이르는 부채로 경영이 부실한 헝다그룹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등 세계 주요증시가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 IT버블이 꺼지자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대폭 낮췄다. 부작용으로 물가가 불안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금리를 다시 올렸다. 곧바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국제금융위기를 일으켰다. 헝다그룹 사태가 직접 국제금융위기를 부를 가능성은 낮다. 국제금융회사들의 헝다(恒大)그룹 채권보유가 적고 중국의 국제금융연관도가 낮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이 있다. 바로 국제적으로 코로나19 팽창정책으로 부풀대로 부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꺼뜨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연쇄부도 위험에 처할 경우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오는 연말부터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재연하며 G2발 국제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험의 최전선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의 회오리에 빠진 한국경제는 금융시장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 한

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회사들의 대출억제는 금융시장의 안정 대신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 주택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대출받지 못해 계약금까지 잃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주거가 불안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대출절벽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리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서둘러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축소 조치가 반대로 부동산시장 불안과 가계부채의 부도위험을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G2발 국제금융위기가 몰아칠 경우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무너지며 한국경제는 제2의 IMF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정책도 문제다. 정부는 604조4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채무가 1,068조3천억 원에 달해 국민 1인당 2,06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부동산 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작용을 일으킨다. 통화정책이 냉탕정책이라면 재정정책은 온탕정책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일자리와 복지관련 예산이 216조7천억 원으로 35.9%에 달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예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내년에 예상되는 국가부채는 총 1,068조3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50%를 넘는다.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경제불안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국가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되면 자산시장은 곧바로 붕괴를 시작한다.

경제가 자산시장 거품으로 인해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이미 주식, 원화 가치, 채권가격이 함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거품붕괴의 전조 현상이다. 정부는 정부정책이 투기열풍을 일으키고 거품을 만드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우선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을 서두르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고 사업의 추진도 더디다. 민간부문에서 시장수요에 따라 주택공급이 자유롭게 늘어나도록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와 가계부채의 연쇄부도에 대비해 갖가지 안정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도 확대해야 한다. 다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수순이다. 무엇보다도 산업과 기업 발전을 서둘러 투기로 흐르는 자금을 생산과 투자로 흐르게 해 경제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 놔야 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려 부채를 상환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확대와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무조건 돈을 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선한 기업, 유능한 기업

경영대학 교수
나현승 (경영91)



최근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에서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단연 ESG일 것이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몇 년 전만 해도 생경한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앞 다투어 ESG 경영과 ESG 투자를 선언하는 등 당연한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갑자기 톱 튀어나와 주목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ESG 경영 및 투자에 대한 논쟁은 사실 상당히 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ESG에 관련한 학술적인 논쟁은 이미 1930년대에 시작했다. 당시 Adolf A. Berle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기업은 오직 주주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 반면, 논쟁의 반대편에 섰던 하버드 대학의 교수 E. Merrick Dodd는 기업이 주주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의 논쟁은 Berle 교수가 Dodd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며 일 단락되었지만, 기업의 책임 범위에 관련한 논쟁은 이후로도 지속되고 진화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지구 생태계 위협과 광범위한 인권의 신장 등이 배경이 되어 최근 ESG 경영은 기업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투자 시에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SG를 고려하는 ESG 투자 역시 그 시작은 일부 기독교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노예무역 및 도박, 주류 생산 관련 업체 등을 투자에서 배제했던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사회적 책임투자, 지속가능투자 등의 단계를 거쳐 현재의 ESG 투자로 발전하였다. 국내 ESG 투자는 해외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연금도 2018년에 스튜어십십 코드에 가입하고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이 동참한 것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ESG 경영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이윤 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고 주주 뿐 아니라 노동자, 물품공급업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 이익 또한 보호하는 경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다.



우선 기업의 이윤 및 주주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시하는 도
구주의 혹은 계몽적 주주가치 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접근 방식에서는 ESG 경
영이 이윤과 주주가치 극대화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반면 영국의 저명한 재무학자 알렉
스 에드먼스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저서 “Grow the Pie (국문 번역서 : 파이코노믹스)”에서 “파
이코노믹스”를 주장하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으로 정
의했다. 여기서 파이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며, 기업의 목적에 있어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선행한다. 즉,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
면 그 결과로써 장기적인 이윤 또한 증가한다는 것으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핵심사
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 경영 및 투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과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장기적인 이윤 및
주주가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ESG 경영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윤과 주주가치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아 오
히려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중요하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및 투자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재무
금융 분야에서는 특히 기업의 ESG 경영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
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다수의 관련 연구들은 기업의 ESG 경영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예컨대 기업의 ESG 경영 순위가 높을수록 경제위기
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인수합병 결정 시에도 더 좋은 주가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외부주주들이 ESG를 위해 주주제안을 제기하여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거나 기업관련 활
동을 하는 경우에 기업의 주가 및 영업성과 상승이 발견됐다. 에드먼스 교수 역시 논문을 통
해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들의 주식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함을 밝혀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피고용인에 대한 투자가 주주 이익 증가로 연결됨을 보였다.

하지만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기업의 ESG 경영이 주주가치 및 이윤에 부정적임을 발견한 연구들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즉, ESG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경영자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ESG 경영 순위가 높더라도 매출 및 성과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며, 기업의 ESG 관련 뉴스에 주식시장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의 소유 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기부금이 감소하는 등 ESG 경영이 대리인 문제로 인한 비용임을 시사하는 결과도 발견됐다. 따라서 해당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유의점은 앞서의 연구들이 분석한 ESG 경영은 기업이 취사선택한 것이므로 모든 ESG 경영 방식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발견된 ESG 경영의 주주 가치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기업이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한 ESG 투자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장기적인 이윤과 주주 이익까지 함께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 즉, 선한 기업이 동시에 유능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이상적이며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결과일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를 전공하고 ESG 경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필자도 예외가 아니며, 그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 및 기업의 정책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 구체적 상황들과 경제 주체들의 유인,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애초의 의도와 크게 다를 수 있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ESG 경영 및 투자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주의를 요하는 첫 번째 지점은 ESG 경영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낙관이 특정 경제 주체들에게 사익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는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은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 정도가 낮은 환경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와 같이 기업의 경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및 소유경영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ESG 경영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명분으로 외부 주주들의 관여와 감시를 무력화하고 사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사회적 기여를 표방하고 스스로의 사회적 평판을 높여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제주체는 지배주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존재 또한 유사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역사 속에서 때로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섭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기업이 사

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비용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자칫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기업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지배주주의 부재로 인해 정부 간섭 우려가 큰 기업일수록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경영 투명성이 동반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 창출 추구는 오히려 대리인 비용 증가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실증 연구들은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할 때에 한해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밝혀준다.

ESG 경영 및 투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또 다른 지점은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가 매우 난해하며 따라서 관련된 의사결정 시 경영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감시와 사후적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적 가치 투자라고 하여 모든 투자 안을 채택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의사결정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이 높고 대리인 문제의 우려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면밀한 감시 및 평가가 필수적이다.

또한 감시와 평가를 담당할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할지도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영진 감시의 역할은 주로 사외이사들의 역할이지만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주주들의 대표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해상충의 여지 또한 존재한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ESG 경영을 위한 위원회들을 이사회 내에 설립하는 경우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위원회들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연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ESG를 투자의 사결정에 반영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앞 다투어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필자 또한 ESG 경영의 대의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보여주기 식 ESG 경영과 투자는 오히려 막대한 비용과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SG 경영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가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어떤 방식의 ESG 경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고찰이 필요하다. ESG 경영 및 투자는 기업과 금융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이다. 소비자로서, 연금 수혜자로서, 투자자로서, 채권자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우리는 각기 다른 역할로서의 이해관계자이다. 기업이 진정성 있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감시하고 구별하며 똑똑한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 ESG 경영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1.1.1~2021.10.28 기준)

<500만원>

57 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5 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65 학번	허광수	자문위원
67 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72 학번	구자열	자문위원
72 학번	김 윤	부회장
72 학번	허진수	부회장
74 학번	승명호	부회장
75 학번	안영일	부회장
75 학번	허경수	부회장
76 학번	이 범	부회장
77 학번	이만득	부회장
89 학번	정의선	부회장

<300만원>

84 학번	이용훈	부회장
-------	-----	-----

<100만원>

63 학번	여운대	고문
64 학번	강동식	부회장
66 학번	박성훈	자문위원
66 학번	최용순	자문위원
66 학번	황병조	자문위원
70 학번	김광식	부회장
70 학번	이창희	부회장
70 학번	한대근	부회장
72 학번	양승은	부회장
72 학번	황구연	부회장
73 학번	정기련	부회장
74 학번	강호갑	부회장
76 학번	강형모	부회장
77 학번	이재홍	부회장
77 학번	이철우	부회장
78 학번	이영호	부회장
79 학번	김 정	부회장
79 학번	이동열	부회장
80 학번	변대현	부회장
80 학번	정학현	부회장
82 학번	배종석	부회장
82 학번	여용동	부회장
82 학번	최종영	부회장
87 학번	홍종성	부회장
88 학번	전찬혁	부회장
89 학번	이동섭	부회장
90 학번	송승민	부회장
90 학번	한상일	감사
92 학번	강정훈	부회장
	(익명)	
97 학번	심 건	부회장

<50만원>

55 학번	유상욱	자문위원
-------	-----	------

55 학번	이석호	자문위원
59 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 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2 학번	김병건	자문위원
62 학번	최부웅	상임이사
65 학번	장옥수	상임이사
66 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75 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 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 학번	이상현	상임이사
79 학번	임영진	상임이사
79 학번	정웅진	상임이사
80 학번	김용현	상임이사
81 학번	김연수	상임이사
81 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81 학번	홍홍석	상임이사
84 학번	배형근	상임이사
85 학번	김정호	상임이사
86 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93 학번	강준환	상임이사

<30만원>

67 학번	신동연	상임이사
70 학번	정균화	상임이사
74 학번	김동선	상임이사
79 학번	최수규	상임이사

<20만원>

63 학번	이연승	자문위원
63 학번	전현찬	상임이사
69 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69 학번	이재선	상임이사
71 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72 학번	최철기	상임이사
92 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10만원>

자문위원

58 학번	유취성
-------	-----

이 사

53 학번	이호용		
54 학번	김진배		
55 학번	김기인	박은양	
58 학번	함명돈		
59 학번	권상진		
60 학번	이웅휘		
61 학번	김길남	박순자	성영일
62 학번	송준일		
63 학번	김종원	이승철	이영무
64 학번	김용운	안상철	정제성
65 학번	최병일		홍인표
66 학번	김홍재	신현욱	

67 학번	김용동		
68 학번	서정규	오정욱	
69 학번	맹인재	신현웅	이정주
71 학번	권관순	최윤도	임채홍
72 학번	문덕인	이원창	
73 학번	김순배	정봉채	현기춘
74 학번	김승길	박창근	윤명상
75 학번	강태성	김우진	김창경
76 학번	김덕만	박호인	배유현
	손봉원	이법호	장진원
77 학번	이완재	이용모	
78 학번	경석현	류한호	박주병
	조경영	조정환	홍 승
79 학번	김상해	김용상	김원환
	민경섭	서동린	안성경
80 학번	김경남	배기범	정백조
81 학번	김재범	박성철	박정열
	유한수	이상혁	이훈복
82 학번	장태수	정교순	
83 학번	송경석		
84 학번	김준호	위승훈	최병권
85 학번	임경훈	임 욱	정병욱
86 학번	양근섭	오인환	정종갑
88 학번	박동진		황택현
89 학번	김평국		
93 학번	염규상		
96 학번	주민근		

일반교우 <3만원>

48 학번	황헌수		
51 학번	전윤자		
52 학번	김영섭		
53 학번	엄기정	정 환	
54 학번	김동진	이종은	이종환
	조해연	태호팔	조태규
55 학번	권중탁	김관수	김광희
	김정래	김정식	남치현
	신문철	신범현	윤희표
	이순용	이승재	이형구
	정영호		정삼택
56 학번	권용진	김지영	백공용
	윤길림	이기홍	이연상
	조해균	최종해	전상훈
57 학번	구인본	김문석	김성균
	김재곤	서우식	이병길
	정우종	홍성규	정기원
58 학번	남태현	박성업	사윤진
	오덕환	이종득	이종철
	홍종익		천정호
59 학번	강창석	강해홍	권병용
	김주환	노규재	박형문
	송운한	송창순	양재관
	이기홍	이응두	이윤제
			(6만원)
			이의방

* 오기(誤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교우회로 연락 바랍니다(02-922-3762)

60 학번	이창용	한순영			69 학번	김영호	정영목	정택모	조대승		94 학번	김도윤	서경덕	임태봉
	구자욱	김광평	김삼경	김상호	70 학번	강영구	구본능	박병천	송재윤		95 학번	이규열	이희운	지재홍
	노수범	박상화	박정자	성윤경		제 철					96 학번	김민엽	이명준	이준희
	송 정	신준호	이일구	정현구	71 학번	박용우	박장훈	허진영		97 학번	강민수			
	조수만	조시연	최덕형	하정일	72 학번	고재영	김성욱	김영만	김종현	98 학번	이재등			
61 학번	한국언	한기정				류병기	박흥국	양삼규	엄의식	00 학번	박 진			
	김도민	김병만	김소현	김순구		장석산	전종환	정우성	황순기	03 학번	오병원	추창화		
	김윤장	김홍곤	박무용	박식의	73 학번	김교웅	손대정	이승대	이인철	04 학번	김형태			
	박영업	박진자	박청자	박화신	74 학번	김성화	김주화	박남식	박영식	05 학번	강종범	김정권	이근호	이현호
	부수남	송일웅	안희민	엄무성	75 학번	김우태	김호섭	김 훈	박문재	07 학번	심윤보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이재원				08 학번	신재호			
	윤태희	이경순	이근창	이봉현	76 학번	권순도	김광환	김성수	백현재	09 학번	송명근	전태희		
	이원태	이재영	이채영	이학주		이봉용	정민진	이승철 (10만원)		10 학번	김도형			
	전규수	조 경	채창현 (6만원)	최동권	77 학번	김대철	이찬근	임동하	홍태기	11 학번	송웅기	한은경		
	최 홍 (6만원)				78 학번	강석현	구본용	권오상	김병수	12 학번	황지민			
62 학번	구자웅	김광태	김종진	김효명		김석민	김일용	박수영	상희찬					
	백효휘	석영부	송기현	유병하		안승배	오대용	유승식	정세종					
63 학번	이순영	이민영	이호웅	한상욱		황순하								
	김소부	김시균	김일웅	김지창	79 학번	김성태	김영관	류병완	신현길	62 학번	500,000			
	남 훈	박종일	백선기	오순일		양원묵	유순근	정운창	채승우	66 학번	500,000			
	윤익순	이천우	임휘련	정완영		황보평				67 학번	500,000			
	최경호	한홍섭			80 학번	김병조	김신희	김태현	유지열	69 학번	500,000			
64 학번	고병선	김덕환	김철주	김춘식		조현찬	최유성			71 학번	1,000,000			
	김후종	민선용	박재길	신준철	81 학번	김신철	김한근	오주환	이심훈	72 학번	1,000,000			
	안덕수	유영식	유재현	이경희	82 학번	김지환	박종원	오창희	이경호	73 학번	1,000,000			
	이항선	이형탁	정철현	조종래		이성우				74 학번	750,000			
	최종한	허석도	현봉길	홍현묵	83 학번	곽병현	김민호	김윤호		75 학번	1,000,000			
65 학번	황석희				84 학번	강운구	강학수	김민권	김병남	77 학번	1,000,000			
	강병호	박완근	박태인	신성용		김홍석	박광구			78 학번	1,000,000			
	이경찬	이정수	조희원	허창무	85 학번	강황배	박승하	신강영	신호섭	80 학번	1,000,000			
	김명진	김진하	박민규	박용혁	86 학번	김좌영	류재열	서동욱	황인하	81 학번	1,000,000			
	성순환	염수열	오창석	우강용	87 학번	이상식	이종제			82 학번	1,000,000			
66 학번	이연상	이중구	장철기	정동준	88 학번	구자은	김삼덕	하종문		84 학번	1,000,000			
	정순달				89 학번	박병영	서계원	이윤석	정운근	86 학번	1,000,000			
	윤정섭	이계남	이재현	조용건	90 학번	김형기	염창열							
	최종철	한기석	한상규	한창기	91 학번	이상수	조성일							
					92 학번	김재형								
67 학번	서세철													
68 학번														

학번별 분담금

62 학번	500,000
66 학번	500,000
67 학번	500,000
69 학번	500,000
71 학번	1,000,000
72 학번	1,000,000
73 학번	1,000,000
74 학번	750,000
75 학번	1,000,000
77 학번	1,000,000
78 학번	1,000,000
80 학번	1,000,000
81 학번	1,000,000
82 학번	1,000,000
84 학번	1,000,000
86 학번	1,000,000

학번확인불가(동명인)

김민아 30,000

감/사/합/니/다.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 - 910009 - 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Global 30위 경영대학과 교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일반연회비

달성

74.7%

목표 14,000,000 원

실적 10,460,000 원

기별분담금

달성

65.5%

목표 21,000,000 원

실적 13,750,000 원

임원분담금

달성

63.3%

목표 192,000,000 원

실적 121,630,000 원

TOTAL

2021년 10월 28일 기준

목표 227,000,000원

실적 145,840,000원



달성

64.2%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를 더했다 가능성을 넓혔다

급변하는 미래환경과 고객변화 속에서
에너지가 삶과 더 가까워질 순 없을까?

그래서, **GS칼텍스**가 시작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확장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가능성을 넓힙니다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차량 자동인식, 주유 간편결제 등 편리함을 높이는 에너지플러스 모바일서비스
(비콘인식, 네이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EV충전, 수소충전, 마이크로모빌리티, 물류거점 서비스 등)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